



<b>코스피</b> 2464.16 (+20.18)	<b>코스닥</b> 854.93 (+4.08)
<b>금리</b> (연고채 3년) 2.28 (-0.03)	<b>환율</b> (USD-달러) 1073.10 (-7.80) (10일)



[해설]  
혼돈의 회계  
부메랑 된 IFRS  
03

# 한국GM에 72억 달러 투입, 亞太본부 국내 설립

## 정부·GM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

GM, 64억 달러 부담... 대출금 28억 달러 출자 전환  
산은, 7.5억 달러 지원... 지분매각제한·비토권 확보

정부와 GM(제너럴 모터스)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 GM의 기존 대출금 28억 달러를 출자 전환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43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총 71억 50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GM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부품업체 위기 극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1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지원 방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로 했다.

GM은 한국GM의 기존대출금 28억 달러는 올해 안에 전액 출자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한국GM의 설비투자 등에 28억 달러를 지원하고 희망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에 8억 달러를 지원 후 출자 전환하는 등 36억 달러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대 주주로서 올해 안에 한국GM의 시설투자용으로 모두 7억 5000만 달러를 출자해 GM의 지분매각제한, 비토권(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 견제 장치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관련기사 2면>

정부에 따르면 한국GM에 대한 총 투입 자금 71억 5000만 달러 중 GM은 64억 달러, 산업은행은 7억 5000만 달러를 각각 부담하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한국 GM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선되면서 영업정상화와 장기적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은은 11일 GM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약서(LOC)를 발급할 예정이며 이달 18일 산은과 GM간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가 체결되면 올해 안에 7억 5000만 달러를 출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산업부와 GM은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GM은 한국GM 위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태지역본부를 우리나라에 신설

하고 한국GM을 아태지역 생산·판매·기술개발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태지역본부는 중국을 제외한 아태지역 사업을 총괄한다.

아태지역본부는 아태지역 생산 기획을 총괄하면서 본사의 제품 기획과 신차 물량배정 과정에도 참여하는 만큼 우리나라에 설치되면 한국GM의 장기적인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부품업체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GM을 돕기로 했다.

/최신용·채신화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社告

### 메트로경제가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메트로신문이 창간 16주년을 맞아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언론계 주인공을 찾습니다. 2002년 5월 창간한 이후 성장을 거듭하며, 올 3월에는 국내 언론사 중 유일하게 유·무료신문 동시발간 체제에 돌입한 메트로신문이 유능한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매일 아침 시민들에게 <메트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창간 16주년인 2018년을 맞아 관공서·기업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5일 유료신문인 <메트로경제>를 직접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메트로신문은 신문의 격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유능한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16년 역사의 메트로신문과 함께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문 : 산업 / 금융 / 유통 / 정치분야 취재기자
- 모집내역 ①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② 모집인원 : 0명
- ③ 응시자격 : 해당 분야 경력 3~10년 사이
- <공통사항> ①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 (지원서 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지원서에 사진부착)
- ② 졸업증명서 1통, 석·박사 학위증명서(해당자) 1통
- ③ 기명기사 3건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②③항의 서류를 면접 시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 2018년 5월4(금) ~ 2018년 5월18일(금) 오후 6시까지
- ②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5월 18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18(옥인동)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앞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본지 웹사이트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문의 : 경영지원실 (02-721-9826)



## 참사 4년여 만에 바로 선 세월호

지난해 4월 목포신항에 거치됐던 세월호가 1년 여만에 선체 직립에 성공했다. 침몰 4년여 만에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바로 서게 된 것이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현대삼호중공업은 10일 낮 12시 10분 세월호 선체를 94.5도까지 바로 세워 선체 직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만톤 급 해상크레인으로 선체를 세우는 작업을 시작한 선조위와 현대삼호중공업은 오전 11시 58분 90도 직립에 이어, 낮 12시 11분 94.5도 직립을 마치고 작업 종료로 선언했다.

/뉴스시스

# 김상조 “일감몰아주기 선제적으로 개선해 달라”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 10대그룹 간담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개최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일시적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손진영 기자

로 조상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

업의 희생 위에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계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순환출자 해소 등 기간 재계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 노력에 대해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개선사례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의 출자 구조 변화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기본적 출자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고,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정이 늦어질수록 한국 경제에 초래하는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법은 비효율적이며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삼성 대표로 참석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말했으며, 윤 부회장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 DGB금융 회장에 김태오 내정 임추위 경북고 인맥 등에 엮다

DGB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경북고 출신의 김태오(64) 전 하나HSBC생명 사장이 내정됐다.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DGB금융에 또다시 ‘학연 우선주의’가 우려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경북고 동문이었다는 점에서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오 DGB금융 회장 내정자

DGB금융지주는 10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김태오 전 하나HSBC생명 사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김 내정자는 “우선 소통과 화합으로 조직안정화에 주력하고 정도 경영을 통해 고객과 주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 및 가치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 강화와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지역 기반을 넘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로 명실상부한 종합금융그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1954년 경북 왜관 출신으로 경북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GM 5년간 지분 못 팔아... 10년간 1대 주주 유지

## 석달 만에 정상화 협상 마무리

군산 등 지역경제 어려움 여전히  
국회 관련 예산안 조속 처리 당부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협상이 모두 마무리됐다. GM 본사가 한국GM에 대한 구조조정 이슈를 꺼내든 지 세 달여 만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GM에 7억5000만달러(한화 약 8000억원)를 새로 투입한다. GM 본사로부터는 GM 아태지역 본부 유치와 10년간 1대 주주 유지, 비토권 등을 약속받았다.

한국GM으로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 지속가능한 경영 회생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단 원칙은 지켜냈다는 평가다.

### ◆ 혈세 8000억원 투입 vs 한국GM 10년 존속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총 투입 자금은 71억5000만달러다. 이 중 GM은 64억달러(6조9000억원), 산업은행은 7억5000만달러(8000억원)를 각각 부담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과거부실해소(28억불)	(GM) 기존 대출금 28억불 출자 전환
경쟁력 제고(43.5억불)	(GM) ①(생산성) 설비투자 등 28억불 지원, R&D 및 디자인센터 역량 강화 ②(수익성) 경쟁력 있는 신차 2종 배정, 인건비 절감, 본사 대출금 금리 인하, 생산비용 절감 노력 ③(지역거점) 한국에 아태 지역 본부 설치
정부지원	(산은) 2대 주주로서 7.5억불 지원(우선주 출자) GM의 지분매각 제한, 비토권 등 견제장치 확보
부품업체 및 지역 지원	(부품업체) 금융애로 해소 지원 + R&D 사업 신설 추진 (지역) 지역대책 차질없이 추진 + 군산공장 활용방안 모색

관은 10일 "산업은행의 신규 투자에 대해 국민의 세금 문제로 얘기하지만 한국GM에 투입되는 자금의 10% 정도"라며 "다른 기업이 그(GM이 약속한 64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투자한다고 할 때 정부의 반응을 예상하면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려 8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관심이 쏠렸던 '떡튀' 방지안은 GM 아태본부의 한국 유치와 10년 간 1대 주주 유지, 비토권 회복 등이다.

GM은 오는 2023년까지 5년 간은 한국GM 지분을 팔 수 없으며, 이후 2028년까지 5년 간은 35% 이상 1대 주주를 유지해

야 한다. 김 부총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GM 경영을 총괄하는 아태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이와 함께 단지 10년 문제가 아니고 10년 이후까지도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GM 아태본부의 한국 이전은 구체적 시기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 ◆ 구조조정 원칙은 지켰다

중견조선사, 금호타이어에 이어 한국GM까지 당장 생사기모에 섰던 기업들은 고비를 넘겼다. 정부 지원은 모두 노사합의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제로 이뤄지면서 큰 틀에서 구조조정 원칙은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한국GM 역시 인력구조조정과 인건·복리후생비 절감 등 노사의 양보가 있었고, 한국GM에 대한 GM의 대출금 28억 달러를 전액 출자전환해 과거 부실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다른 특혜를 주지 않았다.

정부는 기존에 GM 측이 제출한 투자계획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만큼 향후 다시 제출하면 법령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는 주요 업종에 대한 산업진단을 통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 ◆ 군산 등 지역문제는 여전히

한국GM에 대한 경영정상화는 물꼬가 트였지만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은 여전히 있다.

특히 군산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대책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면서도 가장 아쉬운 점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라며 "해당 지역에 새로운 투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국회 등 정치권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해당 지역 산업 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대체·보완산업을 육성하며, 신규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세제·입지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산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일문일답

# “떡튀 방지책, 10년 후까지도 고려... ‘고통분담’ 구조조정 원칙 통해”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본부(이하 아태본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가 '상징적 의미'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군산 등 구조조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대체보완책을 찾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답은 '한국 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아래는 김 부총리 및 관계기관 장관과의 일문일답.

### —아태지역 본부의 유치, 규모나 시기는.

"아직 구체적 시기와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다. 아태지역 본부는 절대적 심사에 대한 계획이나 심사 물품에 대한 개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GM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번 '떡튀 방지책'을 10년으로 정한 이유는.

"한국GM에 총 71억5000만 달러(7조 8000억원)의 거액을 투입하는 만큼 리스크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 10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까지도 생각했다. 아태본부를 한국에 가져오고 GM에 거액을 투입하는 등의 방안은 한국 정부와 GM이 계속 윈윈할 수 있는 측면에서 문제없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해해달라."

—GM 실적 결과 수출물량, 인건비 외에 다른 원인은 찾아내지 못했다. 향후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나.

"큰 테두리에서 이상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다. 회계법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나온 결과라서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 현재 매출 원가율(93%)이 경쟁사들보다 높지만, 여러 가지 원가구조가 개선되면 향후 3~5년 이내 경쟁사 대비 매출 원가가 떨어질 것으로 본다."

### —이번 협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서 GM이 나간다는 지 등의 나쁜 시나리오로 갔을 때 비교하면 좋겠다."

GM과 관련된 인원은 15만2000명이고 자동차 산업, 경제전반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번 협상은 산업생산,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3대 구조조정 원칙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제시했는데, 관련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에 감사하다. 사측은 물론이고 노측에서도 인건비 동결 등 뼈를 깎는 고통으로 참여해줬다. 산업은행의 7.5억불 지원에 대한 세금 문제도 제기됐는데, 산은의 지원은 전체 투입 자금의 10% 정도로 다른 기업이 신규 투자했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지난해 국내외 뉴스가 한권에... '연합연감 2018년판' 출간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종합 시사정보 자료집 '연합연감 2018년판'이 5월 2일 출간됐습니다.

2017년 한 해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지방, 세계 등 각 분야 주요 뉴스와 각종 통계, 도표 등을 정리해 수록한 이 자료집은 연합뉴스가 보유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150여 명의 필진이 참여했습니다.

초점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한 촛불혁명과 조기 대선, 새 정부 출범을 다룬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탄생,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과 국정농단 재판,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 일주일 연기, 사드 배치와 중국 보복에 따른 한중 갈등과 봉합, 시민이 결정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등을 상세히 조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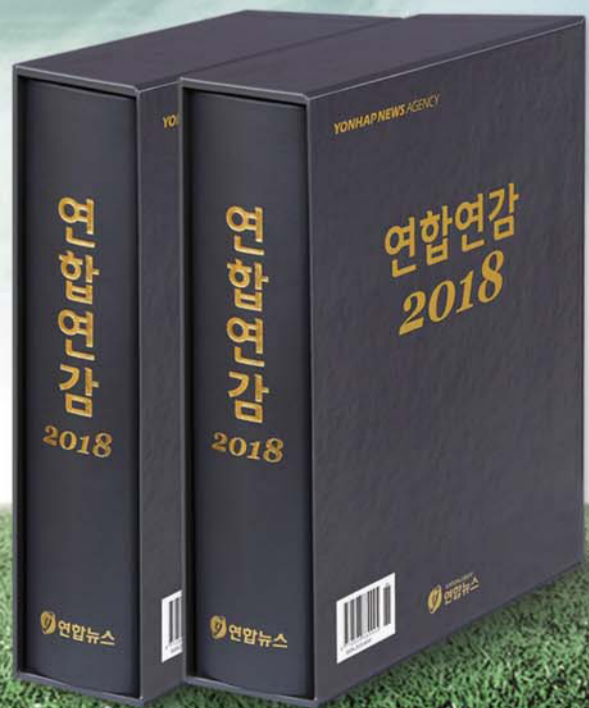
본문에는 분야별 뉴스를 사진과 그래픽, 표 등을 곁들여 체계적으로 편집하는 한편, 중요 사건·사고를 일지로 요약 정리해 한눈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또 각종 현황에서는 국가별 지도와 면적·인구·언어 등 개요에 더해 최근 상황까지 담았습니다.

자료 편에선 통계, 일람, 주요 연설·발표문,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역대 정부기관장, 문재인 정부 5년간 설계도라 할 수 있는 100대 국정과제 등 다양한 자료를 별도로 엮었습니다.

북한 편에서는 급변하는 북한의 정세와 현황을 연합뉴스가 독점 배포하는 조선중앙통신사의 뉴스와 조선중앙TV 보도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해 정리했습니다.

이들러 행정구역별 지도와 함께 나열한 북한 시·도 지리와 김정은 신년사를 비롯한 주요 연설 및 발표문, 북한 10대 뉴스, 일지, 연표 및 북한 주요 인물들의 학력과 경력 등을 소개해 자료 가치를 높였습니다.

- 4×6배판, 총 1,416쪽, 양장본
- 가격 : 18만원



www.yonhapnews.co.kr



구입 문의 서울(02)398-3593~4 광주(062)264-5777 경기(031)238-2222 경남(055)281-0010 경기북·강원(031)569-7788 인천(032)441-2007 대전·충청(042)521-9705 부산·울산(051)441-7400 대구(053)355-3800

“현재 적정의견도 미래엔 분식될지도?” 기업들 회계멘붕

# 원칙 뒤에 숨은 독바... IFRS는 ‘기업 옥죄는 나쁜회계’

## 회계의 회계

### 4 부메랑 된 IF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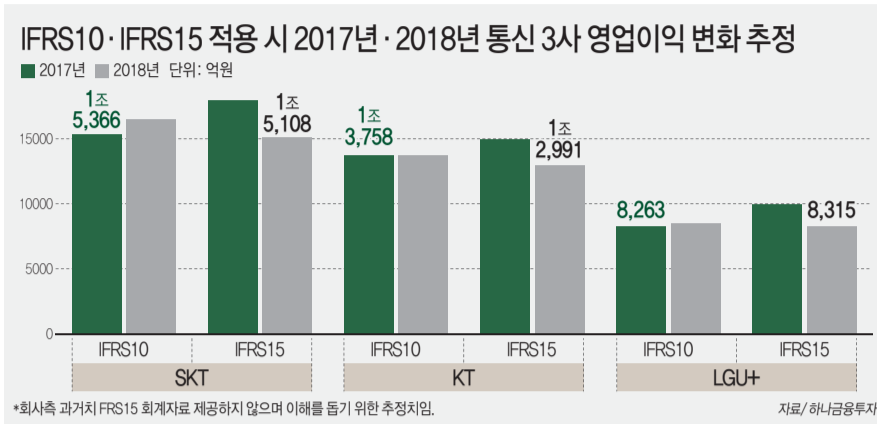
이통사·항공·보험사 실적 기업 실제 펀더멘털과 무관

회계기준 변경따라 들쭉날쭉 “어디서 문제 터질지 몰라”

국제회계기준(IFRS)은 감사인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 때문에 해마다 새로운 기준이 생겨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의 원칙주의를 따르는 IFRS가 오히려 기업에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켜야 할 것을 일일이 나열(포지티브 방식)하지 않고 원칙만 정하면서 기업이 나 감사인의 자의적 해석과 숨김이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매년 강화되는 새 회계기준 때문에 실제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무관하게 재무제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과거 재무제표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것.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9103억원으로 전년보다 11.6% 감소했다. 새 국제회계처리기준(IFRS 15) 도입에 따라 지난해까지 일시에 반영했던 단말기 매출과 판매장려금이 올해부터는 기대가입기간에 맞춰 나눠 반영된 영향이다.

업계는 기존에 사용되던 회계기준(IFRS10)과 비교해 올해 이통사 3사의 영업이익이 총 26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IFRS 16이 도입된다. 이는 리스 자산과 부채를 모두 회계장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계기준이

다. 기존에는 리스 거래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해 금융리스만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해 왔다.

이는 다수의 항공기를 운용리스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항공업계의 부채비율 상승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IFRS16이 적용될 경우

항공업계의 부채비율이 크게는 20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2021년 도입되는 IFRS 17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기준이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계약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시 시장금리를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게 주요 변동사항이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RBC) 악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같은 회계기준에도 더 간단한 해석이 요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연구개발 자산화 논란에 휩싸인 바이오가 주요 사례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업체 10곳의 재무제표 특별감리에 들어갔다. 연구개발 자산화 비율의 적정성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했다는 것은 해당 연구가 매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서다. 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산화한 비용을 모두 손상차손으로 떨궈야 한다. 지금까지는 감사인의 해석에 따라 연구개발비 자산화 허용범위가 달라졌다. 이번 금감원 감리 이후 자산화 기준에 명확성이 더해지면서 많은 제약·바이오업체가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제약·바이오의 회계처리 강화 기조는 타 업종으로까지 전이되고 있다. 최근 기업공개(IPO)를 진행한 의료장비 업체인 제노레이 역시 증권보고서를 통해 높은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이 ‘투자위험 요소’라고 기재했다.

이에 대해 한 회계사는 “회계기준이 점점 엄격해지면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지 누구도 알 수 없다”면서 “현재의 적정의견이 앞으로 계속 적정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손영미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외국인 부당이익 유출 사전차단 금감원, 현장조사권·특사경 도입

(특별사법경찰)

###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

감독당국이 현장조사권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도입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다.

외국 감독기관과 연계해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의 부당이익 유출을 차단하며,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경우 경영참여나 유상증자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최근 불공정거래가 지능화·조직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현장조사권과 디지털포렌식 장비, 특사경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장조사권은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등의 혐의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디지털기기(핸드폰 등)에 저장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추천 권한을 금감원 장에게 추가 부여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외국인의 국부탈취·유출행위도 심층조사한다. 외국 감독기관에 조사대상 외국인에 대한 자료나 자금추적 의뢰 및 현지 조사 지원 등을 요청하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 출금금지를 요청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



윤석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화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바이오·제약사의 신약개발·임상시험과 관련된 공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사업보고서상 신약 기술이전 계약, 연구개발 비용 및 임상진행 단계별 내용 등의 기재 적정성에 대한 심사 강화도 병행한다.

증권방송의 종목 추천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증권방송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불공정거래 관여자의 출연 제한 등도 검토된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해서는 이력관리를 추진해 상장회사를 이용한 ‘머니게임’ 등은 차단할 계획이다.

조호재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회적 관심사항에 대한 신속한 기획조사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불공정거래 감시망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 Stage 6 大건강종신보험

(무배당, 저해지환급형)

## 신한내게맞는착한보장보험

(무배당, 무해지환급형)

**신한생명의 따뜻한 보험으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세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대비해

언제나 당신 곁에는 '신한생명'

가족의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Stage 6 大건강종신보험(무배당, 저해지환급형) 안내사항] \* 이 상품의 저해지환급형(50%형 및 70%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반형(100%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100%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형태입니다. [신한내게맞는착한보장보험(무배당, 무해지환급형) 안내사항] \* 이 상품의 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해지될 경우에는 일반형 대비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일반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정기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형태입니다. [공통 안내사항]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일반)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업의 심의필 제2018-1539호(2018.4.10.)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보험 

태광그룹 지배구조 개선·경영승계 마무리단계

# 티시스·태광관광 합병... 3세 이현준 전면 부상

총 계열사 수 26개 → 22개로 줄여  
출자구조 단순화·투명화 마무리  
인적분할로 오너 3세 입지 다져

태광그룹이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전체 계열사 수를 26개에서 22개로 줄이고,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보유했던 계열사도 합병, 증여 등의 방식으로 출자구조를 단순화했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오너 3세인 이현준 씨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태광그룹은 계열사인 티시스와 태광관광개발의 합병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병이 마무리 되면 최근 2년여에 걸친 출자구조의 단순·투명화 작업은 사실상 끝난다.

그간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과 그의 아들 현준 씨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는 형태로 인해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 광화문 사옥. /연합뉴스

이에 이 전 회장은 2016년 12월 세광패션 지분을 태광산업에 매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에는 와인 유통업체 메르뱅 지분 전체를 태광관광개발에 무상 증

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티시스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뒤 투자 부문은 한국도서보급과 합병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티시스는 그룹 내 IT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업체로, 계열사에 IT 서비스를 제공해 일감 몰아주기의 논란의 대상이 된 기업이다.

티시스는 이 전 회장이 지분 51.01%, 아들 이현준 씨가 44.62%, 아내 신유나 씨가 2.18%, 딸 이현나 씨가 2.18%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티시스는 티브로드와 흥국생명보험 등에 IT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전체 매출 70%가량인 약 2400억원을 그룹 계열사를 통해 올리면서, 일감몰아주기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공정거래법상 오너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비상장사의 경우 내부거래가 연 200억원 이상이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된다.

티시스의 인적분할을 통해 오너 일가 지분율이 20%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 또 이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티시스의 개

인 지분도 태광산업과 세화여중·고를 운영하고 있는 일주세화학원에 무상으로 증여키로 하면서 일감몰아주기 논란 등에서는 자유롭게 됐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지분 처분이 사실상 그룹 내부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티시스 지분의 무상 증여하게 되는 태광산업에 대한 이 전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여전히 43% 수준인 점으로 감안할 때, 배당 등을 통해 오너 일가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배구조 개선은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 논란을 해소하고 동시에 공익적 목적도 고려한 것"이라며 "완료된 이후에도 소액주주의 권리보장, 윤리경영시스템 강화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현준 씨의 그룹 내 입지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예상된다.

현준 씨는 2005년 한국도서보급 지분을 45% 사들였으며 이듬해 49%까지 지분을

늘렸다. 2006년에는 티시스와 티알엠의 지분을 각각 49% 매입했다.

티시스와 티알엠은 2010년 태광산업의 지분을 11.2% 보유했으며 이후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현준씨는 태광산업 2대 주주 자리에 오르게 됐다.

티시스와 한국도서보급이 합병된 이후 현준씨는 합병 티시스 지분 약 40%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태광그룹의 승계 작업도 거의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특히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이 2012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후 7년째 비상경영에 있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경영전략을 짜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준 씨가 경영 전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태광그룹은 사실상 승계 기틀은 마련된 상황"이라며 "현준 씨가 20대 중반에 불과해 당장 경영에 나서기 보다 경영 수업을 쌓는 등 차근차근 과정을 거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정은미 기자 2tcindun@metroseoul.co.kr

## 현대모비스, IVI 전문가 獨 박사 영입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우수 인재를 영입하며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모비스는 독일 콘티넨탈 출신의 인포테인먼트와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칼스텐 바이스 박사(사진)를 IVI(차량내 인포테인먼트)-SW 개발 담당 상무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자율주행과 램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레고리 바라토프 박사와 미르코 고에츠 박사를 영입한 바 있다. 이번 바이스 상무 영입은 현대모비스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한 R&D 경쟁력 강화의 일환이자, 현대글로벌비스와 분할 합병 이후 존속 현대모비스의 미래차 기술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바이스 상무는 독일 카이저슈라우테른 공과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은 뒤 2001년부터 일본 알파인 등에서 BMW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 제품 개발 및 전략 수립을 주도했다.



이후 2012년부터 콘티넨탈에서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개발 및 기술·제품 로드맵 수립, 제품 개발을 총괄했다. 또 자동차 해킹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콘티넨탈의 사이버 보안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인포테인먼트는 실시간 도로교통 정보와 긴급 구난 구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텔레매틱스(차량 무선인터넷), 스마트폰의 각종 정보와 콘텐츠를 차량에 장착된 AVN(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으로 이용하는 미러링 서비스 등으로 대표된다.

이런 기능을 통해 커넥티비티(연결성)를 구현하기 때문에 미래차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현대모비스는 인포테인먼트 전문가인 바이스 상무 영입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역량도 글로벌 톱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자율주행 시대에 최적화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양성준 기자 ysw@

## 삼성전자 QLED TV, 동남아 거점 베트남 공략

런칭 이벤트 개최·신제품 대거 출시  
기후·전력 등 현지 맞춤형 기능 호평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전략 요충지로 본격적인 동남아 대형 TV 시장 강화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2018 삼성 QLED TV 런칭 이벤트'를 열고 QLED TV를 포함한 2018년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동남아 주요 지역 거래선과 미디어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아 '베트남의 영웅'이 된 박항서 감독이 행사장에 등장해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베트남 TV 시장은 2012년부터 6년 연속 2자리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역시 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 전략 시장이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대형 TV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올 1분기 65인치 이상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배 성장하며 50% 이상 점유율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형 QLED TV를 전면에 내세워 동남아 대형 TV 시장 공



삼성전자가 지난 9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2018 삼성 QLED TV 런칭 이벤트'를 열고 QLED TV를 포함한 2018년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사진은 베트남 현지 연예인들과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박항서 감독(오른쪽 두번째),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장 김철기 상무(오른쪽 첫번째)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략 박차에 가한다.

2018년형 QLED TV는 '컬러볼륨 100%'를 구현해 밝기에 따라 최적화된 화질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 '인공 지능 4K Q 엔진'이 탑재돼 저해상도 영상을 4K UHD급 영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행사에서는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에도 날씨 등의 생활정보와 음악과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매직스크린' 기능에 대한 현지 고객들의 반응이 뜨

거웠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동남아 지역 대부분이 기후 변화가 잦아 날씨를 자주 확인해야 하며 K-POP을 즐겨 듣는 고객층이 많다는 점이 주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전력 사정이 좋지 않거나 폭우와 낙뢰가 잦은 환경에서 TV가 고장나지 않도록 부품에 방습 처리를 하는 '트리플 프로텍션' 기능 역시 현지 맞춤형 기능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은미 기자

### 제54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5월 29일~6월 21일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6월 2일~6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응선) : ~~300,000~~ → 130,000원  
6월 10일(일), 6월 17일(일), 6월 19일(화)

강사: 김대영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 KT '남북협력사업개발 TF' 신설

남북경제협력 지원·ICT 교류 확대

KT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을 지원하고, 남북간 정보통신기술(ICT) 교류 확대를 위해 '남북협력사업개발TF'를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KT 남북협력사업개발 태스크포스(TF)는 즉각적인 업무추진과 전사적인 지원을 위해 경영기획부문장 직속의 임원급 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KT그룹의 역량을 결집해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지

원과 함께 소프트웨어(SW) 개발 협력 등 ICT사업 추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남북협력사업개발TF는 총 4개 분과로 구성된다. '대정부지원 분과'는 정부 정책 협력을 지원하고, 'BM/인프라 분과'는 남북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을 담당한다. '그룹사 분과'는 KT 남북협력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과 추진을 맡고, '지원 분과'는 협력사업에 추진되는 자원 및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KT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통

신지원 경험과 앞선 ICT 기술을 바탕으로 남북협력 지원뿐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이 재개되는 즉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 남북경제 참여기업들이 불편 없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남북간 ICT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04년 KT-삼천리총회사(조선컴퓨터센터)와 추진했던 남북 소프트웨어 공동 연구개발을 재개할 방침이다. 또 북한 IT인력 위탁교육 및 IT인력 활용 등 IT 교류사업을 남북한 당국과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기 기자 silkni@

**SK broadband** 2분 24초만에 UHD영화 다운

# “10기가 인터넷 시대 포문 연다”

국내 최초 2.5기가 인터넷 상용화 ‘기가 프리미엄’ 서비스 출시  
기존 1기가 인터넷 보다 3배 빨라

SK브로드밴드가 10기가 인터넷 상용화에 앞서 2.5기가(2.5Gbps) 인터넷 시대를 연다. 이동통신 업계 최초로 2.5기가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에 이어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10일 서울 중구 퇴계로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가장 빠른 속도인 2.5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용화한 ‘기가 프리미엄’은 가구당 2.5기가, 단말별 1기가 인터넷 속도를 제공한다. 단말 당 평균 속도는 833메가비트에(Mbps)로, 기존 1기가 인터넷(333Mbps)보다 약 3배 빠르다.

미국의 IT 솔루션 전문업체인 시스코는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 2021년이 되면 일인당 인터넷에 연결하는 단말 대수가 12.2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기가 프리미엄은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폰 등 다양한 인터넷 단말 이용 고객 ▲대용량 콘텐츠 다운로드 고객 ▲게임을 즐기는 고객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 경험 고객 ▲홈 IoT 디바이스 이용 고객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한다.

SK브로드밴드는 가정 내 3개의 단말이 연결된 상태에서 1시간 30분 분량의 초고화질(UHD) 영화 콘텐츠 다운로드 시 기존 1기가 인터넷의 경우 6분이 소요되지만, 기가프리미엄 이용 고객은 2.5배 빠른 2분24초 만에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랜카드 교체 등 별도의 장비 설치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유지창 SK브로드밴드 인프라부문장



유지창 SK브로드밴드 인프라 부문장이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가 프리미엄’을 소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 일인당 보유 단말 대수가 증가하고 동영상 시청 등으로 데이터 사용이 증가하면서 활용도가 높아진 와이파이 서비스를 함께 묶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기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최저 보장속도(SLA)도 최고속도 대비 30%에서 50%로 높였다.

기가 프리미엄 서비스 출시에는 통신국사와 가입자 간 광케이블망을 연결하는 G-PON(기가비트-수동광통신망) 기술이 큰 역할을 했다. G-PON은 광케이블 1개(코어)로 최대 52.5Gbps 속도까지 제공하며, 가입자를 128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촉진 선도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5기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경쟁사인 KT도 올해 9월 10기가 인터넷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안원규 마케팅지원본부장은 “현재 10기가 시장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지켜보고 있다”며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이전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서비스할 수 있는 2.5기가 서비스 출시를 통해 기가 인터넷 시장의 경쟁구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미 하나의 광고어로 최대 52.5Gbps까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차세대 인터넷 전송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2020년까지 100Gbps 이상 데이터까지 보낼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통신망 구축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 현재 40% 수준인 2.5기가 인터넷 커버리지를 70~80%까지 넓힐 계획이다. 장비와 단말 투자까지 포함한 투자액은 2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내년 상반기 무선시장에서 5세대(5G)이동통신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VR·AR,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AI 로봇 등 다양한 서비스의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무선시장에서도 10기가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 및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지창 부문장은 “이번 2.5기가 인터넷 출시를 기점으로 다가올 10기가 서비스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기가 프리미엄은 SK브로드밴드 유선 전화·인터넷TV(IPTV)와 결합하거나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결합할 경우 최대 30% 저렴한 월 3만1790원(3년 약정 조건)에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삼성SDS 美 GPU 가상화기업 투자

클라우드 사업 경쟁력 제고



삼성SDS가 삼성벤처투자를 통해 미국의 GPU(그래픽 처리장치) 가상화 기술 업체인 비트퓨전에 투자했다고 10일 밝혔다.

비트퓨전은 인공지능 서비스,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분석 등 고성능 연산에 필요한 GPU 자원을 가상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GPU는 직렬처리방식인 CPU(중앙처리장치),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 등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최근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삼성SDS는 비트퓨전 기술을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해 GPU 성능을 2~4배 높이고, 비용은 최대 50% 절감시켜 클라우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삼성SDS는 아마존, MS, 오라클 등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버투스팀, 스팟인스트 등 클라우드 선도기업들과 협력해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면서 클라우드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 ‘G7 씽큐’ 예판 경쟁 스타트…할인·사은품 3색

**SKT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 미니’ 증정**  
**KT 중고폰 보상 ‘최대 103만원’ 할인**  
**LGU+ 블루스피커에 BTS앨범 등 ‘풍성’**

이동통신 3사가 11일부터 LG전자 플래그십 모델인 ‘G7 ThinQ(씽큐)’ 예약판매에 돌입한다. 이통3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혜택을 마련하는 등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1일부터 LG G7 씽큐 예약판매를 17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식 출시일은 18일이다.

G7 씽큐(64GB)의 출고가는 89만 8700원, G7+씽큐(128GB)는 97만 6800원이다.

G7 씽큐는 ‘슈퍼 브라이트 디스플레이’를 도입해 야외에서도 밝고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또 촬영 대상과 주변 환경에 따라 카메라의 설정이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인공지능(AI) 카메라를 탑재했다. 오디오의 ‘붐박스 스피커’ 기능은 음악이나 동영상 재생 시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 대형 스피커처럼 웅장한 사운드가 나온다.

G7 씽큐는 6.1인치 디스플레이에 메모리는 4GB, 64GB, 색상은 뉴모로칸 블루, 뉴오로라 블랙, 라즈베리 로즈 총 3가지다. G7+씽큐는 동일한 디스플레이에 메모리는 6GB, 128GB로 뉴모로칸 블루 색상 1종이다.

이동통신 3사의 제휴카드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최대 70만원대, KT에서는 최대 103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은품 종류도 다양하다. SK텔레콤에서 G7 씽큐를 예약하는 고객은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스피커 ‘누구 미니’와 프리디 무선 충전기, 우드 붐박스 중 한가지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개통 기준으로 선착순 3000명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뮤직메이트’ 2개월 무제한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몰 ‘T월드 다이렉트’에서 예약하는 고객은 추가 사은품으로 ▲브리츠 블루투스 스피커·시계 ▲샤오미 3세대 고속충전 보조배터리 ▲프리디 무선충전기 ▲누구 미니 3만원 할인권 등 4종 가운데 1종을 선택할 수 있다.



SK텔레콤 홍보모델이 ‘G7 씽큐’를 소개하고 있다. /SK텔레콤



KT 스킴어를 찾은 고객들이 G7 씽큐 예약 판매 상담을 받고 있다. /KT

KT로 예약하는 고객은 ‘프리디 무선충전패드’와 ‘우든 붐박스’ 중 1가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KT삼의 직영 온라인에서 예약하는 고객은 ‘앤스리 사운드티비 블루투스 스피커’, ‘요이치 셀카봉’, ‘탁상용 다용도 거치대’, ‘3인1케이클’ 4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G7을 구매한 사전예약 고객에게 ▲뮤직팩(블루투스 무선 마이크+지니뮤직 3개월권) ▲무비팩(AR 매직미러 안경+U+비디오포털 VOD 쿠폰 3만원권) ▲붐박스팩(붐박스 스피커+지니뮤직 3개월권) 중 한가지를 선택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18일부터 기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주문형비디오(VOD) 쿠폰 2만원권을 제공한다. 공식 온라인몰 ‘U+Shop’에서 사전예약하는 고객은 추가로 ▲BTS 정규3집 앨범 ▲스위스 밀리터리 모바일 액세서리 10종세트 ▲블루투스 스피커 등 7개의 사은품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 SK㈜ C&C

## ‘공유 오피스’ 도입 협업·소통혁신 시동

SK㈜ C&C가 구성원들의 고정 좌석을 없애고 개방과 공유를 키워드로 한 업무 공간 혁신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SK㈜ C&C 본당 사옥의 4개 층을 공유 오피스 공간으로 전환해 구성원 간 자발적 협업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SK㈜ C&C는 먼저 기업문화부문, 전략기획부문, 대외협력부문 등 전사 지원조직과 회사 임원들이 근무하는 25층, 26층, 27층을 공유 오피스로 전환하고 7층을 디지털 협업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가장 큰 변화는 조직별 고정 좌석이 없어진 것이다. 구성원들은 본인의 업무 필요에 맞춰 7층과 25~27층에 배치된 집중존, 소통존, 협업존의 좌석을 사용할 수 있다.

공유 오피스는 업무에 따른 구성원 간 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구성원들이 본인 업무 중 타 부서 구성원들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협업존에서 함께 공동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협업존은 별집 모양으로 좌석을 배치해 앉은 자리에서 자유롭게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구서운 기자



LG전자가 10일부터 13일까지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게임전시회 ‘플레이엑스포’에 참가해 게이밍모니터, 게이밍노트북 등 다양한 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LG전자

## ‘플레이엑스포’서 게이밍 IT기기 대거 공개

### LG전자 게이밍모니터 6종 등

LG전자가 10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게임 전시회 ‘2018플레이엑스포’에 참가해 게이밍모니터 6종, HDR 모니터 6종, LG 게이밍노트북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대표 모니터 제품인 34인치 ‘LG 울트라와이드 나노IPS 모니터(모델명: 34GK950G)’는 21:9화면비에 WQHD(3440×1440)해상도를 갖췄다.

이 제품은 엔비디아의 G-싱크 기술을 적용했다. G-싱크는 모니터에 나타나는

복잡하고 전환이 빠른 화면도 끊기거나 잘리는 현상을 최소화한다. 또 LG전자는 이 제품에 ‘나노 IPS’ 패널을 적용했다.

또 이 제품은 21:9 화면비로, 기존 16:9 화면비 모니터에서는 보이지 않던 좌우 양쪽 끝 화면까지 보여줘 몰입감을 높인다. 21:9 화면비를 지원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필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게임을 보다 박진감 있게 즐길 수 있다. 15.6인치(39.6cm) ‘LG 게이밍 노트북(모델명: 15G870)’은 인텔 프로세서 i7-7700HQ를 적용해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 DGB금융 회장에 하나HSBC사장 출신 김태오 내정

## 대구상고 지사 경북고... 역대최약 '본부장급 회장'

(박인규 전회장)

능력보다 학연·인맥으로 결정  
경력 단절 기간만 7년 '우려'  
종합금융그룹 완성도 물음표

DG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에 김태오 전 하나HSBC생명 사장이 낙점됨에 따라 개혁 후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선 DGB금융지주 미래가 '학연'에 의해 그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인규(전 DGB금융 회장)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 나갈 인물(신임 회장)이 능력보다 편협한 지역주의와 학연·인맥으로 결정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뒤에는 '경북고' 인맥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고 인맥' 등에 얽은 김태오 차기 회장  
국가나 기업은 뛰어난 리더가 나타날 때 한 단계 성숙한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 때, GE는 잭 웰치의 22년간 재임 때, 영국은 벤저민 디즈레일리, 글래스틴이 19세기에 해가지지 않은 제국을 만들었다. 미국에서 에이버러햄 링컨의 리더십은 150여년간 지지 않는다. DGB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대해 시장과 지주 안팎에서는 '링컨형 리더십'을 원했다.



대구광역시 DGB대구은행.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나타났다. 경영 능력을 검증받은 이경섭 전 종합은행장이 탈락하고, 김태오 전 하나HSBC생명 사장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DGB금융지주와 금융권 안팎에서는 새 리더로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 ▲적폐 청산과 조직쇄신을 위한 안정적 리더십 ▲탁월한 경영능력(종합금융그룹 완성)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미래 안목과 대처 능력 등을 갖춘 인물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DGB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창사 이래 가장 혹독한 시기"면서 "고객과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의 안정과 통합을 위한 실효적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특히 큰 조직을 이

끈(리더십 있는) 인물이 오길 기대했는데 실망감이 크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차기 회장으로 낙점된 김태오 전 하나HSBC생명 사장은 큰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부족하다. 그의 주 재임 시절인 2012년과 2013년 회계연도 하나생명의 자산총계는 각각 2조 8734억원, 2조9904억원으로 삼성생명(2013년 자산총계 193조원)의 본부 수준도 안된다.

특히 2014년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 경력 단절 기간이 길다. 은행 경력으로 따지면 7년여에 달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은행에 대한 이해와 미래 전략에 물음표가 던져지는 이유다.

DGB금융지주는 50년 이상 지역 주민과 동고동락했다. 하지만 DGB금융지주의 조직은 파벌주의와 소수 경영진이 권력을 독점했다. 그 뒤에는 대구상고와 경북고가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DGB금융 지주 안팎에서는 '제2의 박인규 체제' 부활을 우려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DGB금융의 임추위원 5명 가운데 2명의 사외이사가 경북고 동문이다. 경북고는 대구은행장 11명 중 4명을 배출하며 DGB금융 내 인맥도 잘 구축돼 있다. 경북고 출신인 김태오 전 사장이 차기 회장으로 낙점된 배경이다.

A은행 출신 한 은행장은 "낙하산 관치 금융도 문제지만 학연·지연으로 금융의 사유화를 노리는 잘못된 파벌주의가 더 큰 문제"면서 "DGB금융이 과거 전철을 다시 밟는 느낌이다"고 우려했다.

## ◆종합금융그룹 완성 어떻게

DGB금융의 미래는 종합금융그룹 지향이다. 채용 비리 등으로 조사를 받는 박인규 전 회장이 비금융부문에 공을 들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DGB금융지주는 은행 비중이 90%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하이투자증권 인수가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증권이 일각에선 BNK금융지주의 하이투자증권 인수전 참여설이 돈다.

DGB생명보험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26억원으로 최근 3년 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급여력(RBC)비율은 184.2%로 업계 하위권이다.

메리츠증권증권 은경완 연구원은 "DGB금융지주의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918억원으로 컨센서스를 6.7%를 밑돌았다"면서 "부진했던 자산 성장률 회복 확인과 조속한 지배구조 불확실성 해소가 선행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에 걸맞게 균형잡힌 포트폴리오 구축 및 비은행 강화를 위한 현안을 풀 CEO를 기대했다. 농협이라는 거대 조직의 행장을 지낸 검증된 후보가 낙마하고, 현업에서 오랜 기간 물러나 있던 사람이 최종 후보로 오른데 대해 선뜻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장은 하나은행 재직 시절인 2009년 영남사업본부 부행장을 맡으며, 경북 지역 금융에 대한 이해와 인맥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하나금융 부사장 시절인 2006년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을 가까이서 보좌한 점도 눈길을 끈다. 김승유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으로 MB정권 당시 금융권 4대 천황으로 불렸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이대훈 NH농협은행장(가운데)이 미얀마 빈곤층 거주지역 내 초등학교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이대훈 NH농협은행장, 미얀마 현장경영

NH농협은행은 이대훈 은행장이 지난 9일 농협파이낸스미안마(MFI)의 영업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임직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행장은 지난 4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과 베트남 현장경영을 마친 후 마지막 일정으로 미얀마를 방문했다.

NH농협은행의 최초 해외 현지법인인 농협파이낸스미안마는 현재 총 9개

의 영업점을 운영 중이다. 사업 1년여 만에 3만 명에 달하는 고객을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는 현재 중점 영업을 펼치고 있는 양곤을 넘어 미얀마 최대 곡창지대인 아야와디주(주) 진출을 통해 사업영역과 고객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행장은 현지 재계 1위 투(HTOO) 그룹과 계열사 AGD뱅크 주요 경영진을 만나 모바일·송금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IBK기업은행

## 소셜벤처 청년사업가 후원

IBK기업은행은 지난 9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사회연대은행에 후원금 2억 3000만원원을 전달하고 'IBK 소셜벤처 성장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 사업은 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와 서로 다른 사업 아

이템으로 매장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가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립 3년 미만 소셜벤처 7개, 공유가게 2개를 공모해 사업비, 컨설팅, 클라우드 펀딩 연계 등을 지원한다. 기업은행과 사회연대은행은 지금까지 15개 기업에게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했으나 자금력이나 사업노하우 등이 부족한 소셜벤처를 지원해 기업의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소상공인 대출전문... 저축銀이 라이벌”

## P2P 금융의 강자

⑥ 편다

세이프플랜·다자간 신탁계약  
상점상환능력 평가해 대출

“우리의 경쟁상대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저축은행이다.”

상점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한 소상공인 대출 전문 P2P기업이 있다. 편다의 박성준 대표는 상점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를 분석하는 '마케팅솔루션' 사업을 시작으로, 상점의 POS 기기데이터를 분석해 상점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을 시작했다.

편다의 매출대출액은 1년 전(2017년 3월 기준) 168억원에서 416억원(5월 9일 기준)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반면 연체율과 부실률은 지난 4월 기준 각각 1.63%, 2.01%를 기록해 P2P금융협회 내 평균수치와 비슷하거나 밑도는 정도다. 편다 관계자는 “세이프플랜을 통해 투자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연체율과 부실률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 플랜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



편다 박성준 대표

/손진영 기자 son@

도로 편다 초기 출연금의 3억원과 대출자의 1.5%를 편다로 적립해 채권이 부실화될 경우 투자자에게 안정적으로 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편다 홈페이지로 제공하고 있는 투자자 연체율과 부실률은 세이프플랜을 통해 실제 연체율과 부실률에 비해 1~1.5%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다는 이 시스템이 완전한 보호 시스템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다자간 신탁계약'을 맺고 운영중이다. 다자간 신탁계약은 상점에서 발생한 카드매출액을 카드사가 매장으로 보내기 전 편다에 먼저 일부 대출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있다.

박 대표는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사용

하기 때문에 카드로 매출이 발생하면 카드사에서 상점에 수익금액을 보내기 전 편다(제1수익권자)로 지정해대출금을 먼저 받는 형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대출금을 갚다 보니 투자자뿐만 아니라 대출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을 맞은 편다의 박 대표는 “이제 상점 전문 브랜드라는 느낌이 든다”며 “이제는 투자자에게 위험 투자가 아니라 안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세이프플랜과 자동분산투자 등으로 안전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제 50%정도 마련됐다”며 “더 완벽해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기르겠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하나금융 세종시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

하나금융그룹은 10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세종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비롯하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강성기 행정복지국장 등 양측 관계자 약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범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3곳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과 기부채납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문호 기자



# SK텔레콤 고객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안심T로밍

전화를 걸 때도 받을 때도  
**매일 음성통화 3분 무료**

매일 3분 무료에 30분까지 최대 1만원만 부과

데이터가 필요할 땐 부담 없도록  
**데이터 일정한 5천원**

일 8.8MB 사용 시까지 (이후 24시간 동안 과금 없이 속도제한 이용)

해외 로밍은 ON!  
 요금 부담은 OFF!



\*음성통화 30분(무료 3분 포함) 이후부터는 초단위 과금, 데이터는 일일 8.8MB 사용 시까지 5천원만 부과되며 이후 24시간 동안 과금 없이 200Kbps 속도 이하로 계속 이용가능  
 \*별도 가입 필요 없음 | 별도 로밍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 참조



NH투자증권

업계 첫 로보 자문상품 출시

NH투자증권은 10일 업계 최초로 로보어드바이저 개인연금 자문상품인 'NH로보연금 자문형'을 출시했다.

NH로보연금 자문형은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신경쓰기 어려운 개인 연금 계좌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상품으로, 연금 펀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KB증권

‘비대면 투자미식회’ 개최

KB증권은 전국의 면 맛집에서 진행되는 이색 투자 설명회인 ‘비대면 투자미식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KB증권의 비대면 계좌개설 보유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고객은 비대면 계좌 개설 후 신청 가능하다.

DB금융투자

‘시중금리+α’ 전단계 랩 모집

DB금융투자는 18일까지 투자기간이 짧은 전자단기사채 펀드에 투자해 ‘시중금리+α’의 수익을 추구하는 ‘DB 전단계 랩(Wrap)’을 모집한다.

작년 말 판매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가입고객도 매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이 상품은 기존 Wrap 상품에 비해 최저 가입금액이 낮아 1000만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지배구조 ‘A+’ 지주사 마무리·정기선 승계 ‘착착’

(학점)

(정몽준 이사장 장남)

2018 기업 지배구조 개편

⑧ 현대중공업

정몽준의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사를 완성했다. 정 이사장→현대로보틱스(지주회사)→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현대오일뱅크·현대글로벌서비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완성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지주사 전환… 정 회장 지배구조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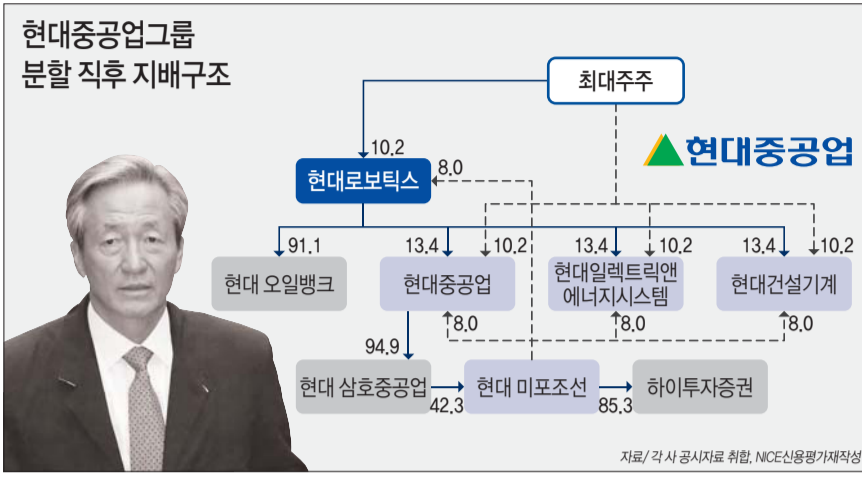
“현대중공업그룹이 주주와 시장의 기대 속에 사업 분할을 통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지 1년이 됐다. 앞으로 현대중공업지주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고히 하고, (그룹) 각사가 책임경영과 독립경영을 실천하면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2016년 11월 현대중공업그룹은 순환출자 해소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의 목적으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2월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는 지주회사 현대로보틱스의 분할 안건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4월 현대로보틱스와 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 등 신규 법인들이 설립됐다.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설립요건 충족, 현물출자 유상증자 완료, 금융회사(하이투자증권) 매각 발표 등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차레로 진행해 왔다.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는 물론 독립경영체제 확립과 과감한 투자로 위기를 딛



체제 전환·재무 안정성 제고 힘써 무차입 경영·R&D 적극 투자 장기적 측면에서의 승계 준비

각 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신설 법인들은 분할 후 흑자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완의 단계다.

올해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마무리와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현대오일뱅크 기업공개(IPO)를 통해 그룹의 전반적인 재무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국기업평가 성태경 책임연구원은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되고 투자 및 계열사 관리를 전담하는 지주회사 체계가 구축되어 지배구조도 투명화됐다”면서 “추가적으로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

에 관한 지분을 규제와 손자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등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년의 유예기간 중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룹미래 관건은 체질 개선

시장 안팎에서는 체질 개선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가 일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1982년 현대중공업 사장, 1987년 회장을 거쳐지만 2001년 고문으로 물러난 후 지금까지 경영에서 손을 떼고 있다. 이후 최대로보틱스 지주사로서는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와 국제 무대에서 주로 활동해 왔다.

지난해 11월 현대중공업 그룹은 정몽준 대주주의 장남인 정기선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계열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로 앉았다. 정 전무는 2년 만에 부사장 승진과 함께 선박 애프터서비스업체인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대표까지 맡아 본격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선다. 그가 위기에 놓인 현대중공업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놓느냐가 경영승계의 명분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를 위해 개국 공신인 최길선 회장이 자문역으로 내려와 길을 터줬다. 권오갑 부회장이 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에 오

르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벌였다. 정 부사장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다. 지난 2015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진두지휘하며 잠재력을 보여줬다. 현대중공업과 사우디의 전략적 협력은 정 부사장의 끈질기고 치밀한 준비에 의해 성사됐다. 지난 2016년 3월 알 팔리(Al Falih) 당시 아랍코 사장, 4월 알 나يمي(Al Naimi) 사우디 석유장관이 현대중공업을 방문했을 때 직접 영전에 나선 인물이 정 부사장이었다. 그는 영접 직후 사우디 협력사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사우디를 수차례 방문하며 실무협상을 지휘했다. 같은 해 6월엔 현대중공업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 선주사를 직접 확대한 바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립연방대학교에서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Rosneft)와 협력합의서에 서명한 것도 정 부사장이 중점 추진했던 해외 네트워크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계동 현대빌딩에서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사장과 함께 유항열 한국전력 부사장과 만나 해외 페트록 발전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페트록 사업에 대한 3시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이 정기선 전무로의 경영 승계 준비로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현대중공업 지주 지분 5.1%를 확보하며 3대 주주로 올라섰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 부사장의 나이가 아직 30대에 불과해 승계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국내 주요 그룹들이 승계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승계 준비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분양시장 고급아파트 대세... ‘이왕이면 다홍치마’

건설사, 차별화된 고급단지 분양 특별함 추구하며 수요자 인기 끌여

건설사들이 고급아파트를 선보이며 수요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다양한 설계와 차별화된 자재로 갖는 고급아파트는 수요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KB부동산 시세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는 30~31층에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돼 있고 고급호텔을 방불케하는 외관이 돋보이는 단지다. 3.3m<sup>2</sup>당 평균 매매가는 7079만원으로 반포동 평균(5330만원)보다 무려 1749만원 이상 높았다.

가격 상승률도 일반 단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에 위치한 ‘길음뉴타운(8단지 래미안)’ 84m<sup>2</sup>의 현재 시세는 6억5000만원으로 1년 전인 2017년 4월 기준 매매가(4억8500만원)보다 24.74% 올랐다.

같은 기간 성북구 아파트 평균 상승률 6.16%를

〈주택 고급화 전략으로 공급되는 연내 주요 분양단지〉

위치	단지명	총가구수	일반공급	전용면적(m <sup>2</sup> )	분양시기
경기 과천시 길현동	과천 센트레빌	100	57	84~176	5월
경기 용인시 동백동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	1,187	1,187	69~84	5월
인천 남구 도화지구	인천도화 금강컨테리움 센트럴파크	479	479	59~84	5월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	일광신도시 비스타동원 2차	917	917	96~159	5월

\*분양 개요는 건설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각사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서초동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일반 단지와 차별화된 고급 단지를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별함을 추구하면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개인의 취향과 니즈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고급화 단지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고급화’에 주력한 단지들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우선 동부건설은 5월에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39번지 일대에 과천12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 센트레빌’을 선보인다. 지상 최고 15층, 3개 동, 전용면

적 84~176m<sup>2</sup>, 총 100가구 중 5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는 고급 마감재를 이용해 안전성을 높였고, 기존 아파트보다 10cm 높은 2.4m의 천정고에 거실에는 우물천정을 설계해 2.5m까지 천정고를 높여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최상층 가구에는 복층형 설계를 도입해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자연친화적인 테마공원 등 커뮤니티 시설과 고품격 로비 공간, 유럽형 감성을 담은 부띠끄형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다.

두산건설도 이달 중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419-19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10개 동, 전용면적 69~84m<sup>2</sup> 총 1187가구 규모다. 두산건설의 고급 주거 브랜드 ‘더제니스’로 공급되는 단지다. 전 세대 4-베이(bay), 알파룸 및 펜트리 등 주거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혁신평면으로 설계된다. 단지 내에는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클럽, 키즈클럽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며,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금강주택은 5월 중 인천 남구 도화지구 2-3블록에 공급하는 ‘인천도화 금강컨테리움 센트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84m<sup>2</sup>, 총 47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남향 위주의 4bay 판상형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기존 아파트보다 10cm 높은 2.4m의 천정고에 거실에는 우물천정을 설계해 2.5m까지 천정고를 높여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각 동 최상층에는 복층형 다락을 설계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정연우 기자 yw064@



### 중앙선거위 민주선거 70년... 민주주의 꽃 피웠다



대한민국 첫 민주선거인 제헌국회의원 선거가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여의도 KBS홀에서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유권자의 날은 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일에 맞춰 2012년 지정된 기념일이다. 중앙선거위와 선거 70주년을 맞아 공개한 역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 슬로건이 담긴 벽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 세차례 초강수 대책, 투기는 잡혔으나 양극화 더 심화

## 文정부 1년... 부동산 시장

6·19, 8·2, 10·24 등 대책 쏟아져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후 안정찾아 하반기 입주물량 20.9만가구 달해 분양 양극화·전세시장 약세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부동산시장은 각종 규제책이 이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이 안정되고 각종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한달여만인 지난해 6월 19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6·19대책)'을 통해 시장잡기에 나섰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전매강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지역 10%포인트씩 강화', '재건축조합원주택 공급 수 축소(3주택→1주택)' 등 투기억제가 골자였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끝에 다시 '8·2부동산대책(이하 8·2대책)'이 나왔다. '8·2대책'은 재건축에 국한됐던 조합원지위 양도금지를 재개발까지 확대 적용했

고 2주택 이상 양도세 증과세, 분양권 양도세 50% 세율 적용, 주택담보대출 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강화 등 보유세 부분만을 제외하고 규제의 종합판이 등장했다.

지난해 9월 5일에는 8·2대책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추가되는 등 시장을 더 압박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가 늘어나 관련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분양시장에서도 재건축 일반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8·2부동산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하반기 내내 이어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신DTI,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시행, 지난 2월 '재건축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로 시장을 더욱 옥죄었다. 규제 이외에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비롯해 생애단계별, 소득수준에 맞는 주택공급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지난 1년간 다양한 내용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서울 강남, 세종시, 지방광역시 등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으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주택가격 상승률은 눈에 띄게 둔화되면서 안정세를 찾고 있다. 재건축 초

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된 1월 이후 상승률은 크게 둔화된 상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0일 "지난 4월 들어 상승세가 꺾인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가 본격 시행되면서 3월 이전까지 급매물이 모두 거래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세시장은 하락세가 확산됐다. 전국 기준으로는 3, 4월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경기, 부산, 인천, 울산, 경남, 경북, 충남 등 지역은 3개월 이상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며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

분양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 다. 그러나 올 하반기 전국에서 20만9065가구의 입주물량이 시장에 큰 부담이다. 입주물량은 내년 상반기(19만646가구)와 합치면 약 40만가구에 육박한다. 따라서 전세시장의 약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보유세 강화 카드가 계속 언급되는 것이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변수다. 대출 규제에 이어 보유세마저 증가하면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지역별 공약 중 개발사업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국지적인 개발 기대감도 하반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 〈문재인 정부 부동산관련 정책〉

대책(정책)명	주제	주요내용
6.19부동산안정화대책	투기억제, 시민주택마련	·조정대상지역 37→40개 확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내 전매금지 LTV 및 DTI 조정지역 10%씩 강화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3채→1채로)
8.2부동산대책	실수요보호, 단기투자억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 금지 ·2주택이상 증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1주택자 양도세 거주요건 2년거주 부활 ·분양권 보유기간 상관없이 양도세율 50% ·주택대 세대당 1건 강화 ·중도금대출보증 제한(세대당 2건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1건) ·투기과열지구 추가(분당, 대구수성)
9.5.8.2대책 후속조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	가계대출, 사업자대출 등 규제 강화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 기존주택대+신규대출 원리금 상환액, 신용대출 등 이자 포함해 대출한도 제한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액 기준으로 대출한도 제한 ·지역별 대출규제 등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11.27)		·차주의 상환능력 정확히 반영
주거복지로드맵(11.29)	공급, 지원확대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 지원, 공급확대 등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임대인, 임차인 상생	·8년 이상 장기임대 혜택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건보료 감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적용 비중 확대 토대 마련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정상화(2.21)	사회적 낭비 방지, 재산권침해 최소화	·안전진단실시 전문성 확보 ·조건부재건축 검증강화 ·평가항목별 가중치 조정

\*출처=국토교통부, 금융결제원 /자료=부동산인포

# 혁신성장 '아쉽고' 공정경제 '효과 체감'

## 중견기업이 평가하는 文 정부 1년

중견기업 377곳 대상 의견조사 2곳 중 1곳 "노동현안 최우선 해결"

국가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 2곳 중 1곳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 현안을 산업 부문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견기업들은 문재인 정부의 네 가지 핵심 경제정책 가운데 '혁신성장'을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반면 '공정경제'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지목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 10일 내용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1%가 중견기업 현안 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노동'을 선정했다. 중견기업들이 직면한 노동 문제는 산



업(26.5%), 수출(22.3%)보다 해결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계의 이 같은 인식은 '급격한 노동 정책 변화로 인건비 상승, 극심한 인력 채용난 등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 등의 기타 의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에선 혁신성장이 가장 미진하고, 공정 경제는 가장 앞섰다고 평가했다.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확충, 전략적 해외진출 등 '혁신성장' 항목의 주요 키워드를 감안하면 그동안 내놓은 정부 정책이 중견기업들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가장 속도감 있다고 평가한 공정 경제는 순위락 거래가 많은 중견기업 현장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의 불공정행위 근절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정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견기업들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는 '동반성장'을 지목한 비율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반성장은 '규제완화(24.9%)'보다도 10%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신산업육성(18.3%), 노사갈등 해소(11.4%), 인재확보(9.8%) 순이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비전 2280'에 대한 응답자의 42.1%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보통이다'(36.9%), '별로 또는 전혀 기대안함'(21%)도 적지 않았다. '보통'과 '기대안함'은 비율을 더한 숫자(57.9%)는 '기대한다'(42.1%)를 훨씬 웃돌았다.

/김승호 기자 bada@

# "국민의 삶 나아지게 최선을 다하겠다"

## 文 대통령, SNS에 깜짝 영상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세운 정부라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10일 청와대 페이스북 등 SNS에 깜짝 등장해 국민들에게 직접 인사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이날 아침 청와대 경내에서 촬영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와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등 12시간이 넘는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한 밤중에 넘어온 터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날 영상과 별도로 일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직접 작성한 글도 SNS를 통해 공개했다. "처음처럼,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당일 순방을 마친 후 지난 9일 밤 서울공항에 도착, 참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활주로를 걷고 있다. /청와대

통령은 "입기를 마칠 때쯤이면 '음, 많이 달라졌어. 사는 것이 나아졌어'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 1년이었습니다.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고자 한 1년이었습니다"면서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고자 한 1년이었습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시켜 세계 속에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고자 한 1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드리고자 한 1년이었습니다'고 회상했다. /김승호 기자

# 중국車の 역습... '동풍소콘' 국내 진출 "수입차 1위 목표"

가성비 기반 품질·안전성 갖춰  
판매 네트워크·AS정비망 확충  
경상용차·SUV전기차도 개발  
CJ대한통운과 물류담당 MOU

“중국 114개 AS 정비망 구축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중국 제품에 대한 편견을 깨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 동풍소콘(DFSK)의 한국 진출 파트너인 신원CK모터스 이강수 대표가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판매목표를 1500대로 잡고 향후 5년 뒤 수입차 시장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DFSK의 수입사인 신원CK모터스는 10일 서울 송파구 가든파라다이스에서 신차 발표회를 열고, DFSK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종과 경상용 트럭 및 밴 5종을 선보였다.

이강수 신원CK모터스 대표는 “중국의 자본력과 유럽의 기술력으로 만들어 글로벌시장에서 인기 있는 중국차들을 연속적으로 들여올 예정”이라며 “올해 판매



이강수 신원CK모터스 대표.

목표는 1500대이고, 향후 5년 내에 한국 수입차시장 1위에 오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DFSK의 국내 진출을 앞두고 업계에선 중국산 자동차가 국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품질 논란을 없애고 AS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가성비를 기반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에 걸맞게 판매 네트워크와 AS 정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비업체별로 부품 고장 진단 스캐너 등을 확보하는 등 중국차에 대한 AS 신뢰를 높이고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산은 AS가 안된다는 편견을 깨면 자연스럽게 판매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성엔 DFSK 사장은 “한국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며, 우수한 기술력으로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동풍소콘의 제품들이 한국 고객들의 선택을 받기를 희망한다”며 “현재 동풍소콘은 경상용차뿐 아니라 PHEV, SUV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차들도 지속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라고



Glory 580(PHEV)

설명했다. 이번엔 한국에 최초로 선보이는 PHEV를 포함한 중형 SUV 글로리(Glory) 시리즈는 2017년 중국 내 글로리 580 한 차종만으로 17만 6000대가 판매될 정도로 최고 인기 있는 차종이다. 이 차는 2008년부터 이탈리아 등 유럽시장에 진출했으며, 이후 유럽 디자이너와 기술자들을 대거 영입하여 꾸준히 품질 수준을 높여왔다. 신원CK모터스는 동풍소콘의 글로리 가솔린 모델을 올해 하반기에, 글로리-PHEV는 내년 초에 각각 출시할 예정이다. 글로리 시리즈의 가격은 미정이다.

또 이날 함께 선보인 화물차 K01은 0.7톤급의 미니트럭으로 국내 제품 중 포터와 라보의 중간급이며, 라보에는 없는 각종 편의와 에어백, ESC 등 안전장치들을 대거 기본으로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신차발표회에 K01과 같이 선보인 동풍소콘의 0.9톤 소형트럭 싱글캡(C31)과 더블캡(C32), 2인승과 5인승 소형 화물밴(C35)도 이달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K01은 1110만원, C31은 1250만원, C32는 1350만원에 판매하며 화물밴인 C35의 2인승과 5인승의 가격은 각각 1490만원과 1560만원이다.

한편 신원CK모터스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CJ대한통운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CJ대한통운은 신원CK모터스의 차량과 부품을 중국 현지에서 팅택 PDI(차량 인도 직전 검사)센터까지의 물류를 담당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원CK모터스가 국내 수입하는 물류는 물론, 부품물류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원CK모터스의 안정적인 국내 수입과 CJ대한통운의 중국 비즈니스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명훈 기자 ysw@metroseoul.co.kr

## 일본車の 공습... 혼다, 신형 어코드 韓공략

160개국서 2000만대 이상 판매  
상품성 강화한 10세대 제품 출시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으로 일본차들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점유율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품성을 강화한 신차를 출시하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토요타코리아가 최근 소형 하이브리드 차량 ‘프리우스C’로 흥행몰이에 나선 가운데 혼다코리아는 10일 10세대 신형 어코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공략에 나선다.

어코드는 1976년 출시 이후 지난 42년

간 전세계 160개국에서 약 2000만대 이상 판매된 혼다의 명실상부한 월드 베스트 셀링 세단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4년 7세대를 출시하며 지금까지 3만 9000여대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얻었으며 2008년 8세대는 단일 모델로는 최초로 한 달에 1000대 이상 판매고를 올리는 차량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신형 어코드는 전 모델에 비해 앞뒤 바퀴축 사이 간격(휠베이스)이 2830mm로 넓어졌다. 하이브리드 차량용 배터리도 뒷좌석 아래 탑재해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차체 강도와 강성을 높이고 앞좌석 무릎 에어백을 넣어 안전에 신경을 썼다. 1.5 터보와 2.0 터보, 하이브리드 등 세 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구성돼

있다. 정우영 혼다코리아 대표는 “혼다의 월드 베스트 셀링 세단 어코드가 디자인, 성능, 기술 등 모든 면에서 타협 없는 혁신을 이끌어내 다시 한번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역대 어코드 사상 가장 강력한 경쟁력으로 ‘압도적인 자신감’을 가감 없이 나타내는 10세대 어코드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혼다만의 ‘달리는 기쁨’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어코드는 총 3가지 파워트레인의 4가지 모델로 출시되어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어코드 2.0 터보 스포츠와 어코드 하이브리드 투어링은 혼다 센싱, 레인 와이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식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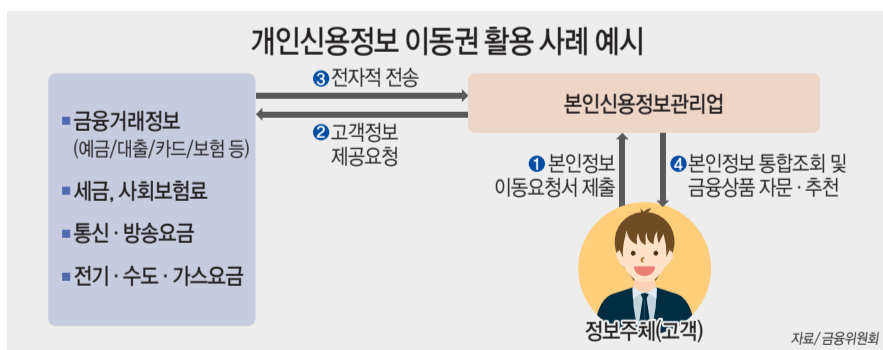
혼다 10세대 신형 어코드.

어 시프트 등 각종 프리미엄 사양이 추가 적용됐으며, 주행 환경 및 노면에 맞게 감쇠력을 조정하는 어댑티브 댐퍼 시스템을 탑재해 한 차원 높은 승차감을 제공한다.

어코드는 화이트, 실버, 메탈, 블랙 4가지 컬러가 전 모델에 기본 적용되며 2.0

터보 스포츠 전용으로 레드, 하이브리드와 1.5터보 모델에는 블루, 샵테인, 커피 메탈 컬러가 추가 적용된다. 가격은 1.5터보 3640만원, 2.0 터보 스포츠 4290만원, 하이브리드 EX-L 4240만원, 하이브리드 투어링 4540만원(VAT 포함)이다.

/양성훈 기자



## 금융사 개인정보, 활용 알리고 보장 늘린다

복잡하고 길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가 보기 쉽게 바뀐다.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4등급으로 나눠 소비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현재 개인정보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비해 제대로 된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사가 강조하는 부분을 제대로 알고 동의해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이번 방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 등이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단순화·시각화해 정보주체에게 전달한다. 정보주체에게 요약 정보를 주고, 고객이 원할 경우 상세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도 도입한다. 정보활용 동의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해택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등급을 산정해 제시하는 것이다. 등급은 적정, 비교적 적정, 신중, 매우 신중 등 4등급으로 구분한다.

금융위는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도 강화하기로 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권리도 보장한다. 가령 금융거래 이력이 적어 신용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실적을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간단하게 전달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또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금융거래 등 고객이 회사마다 접속해야 할 수 있는 정보를 본인 동의할 경우 신용정보관리회사가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기간 평가 결과가 우수한 회사엔 안전성 인증마크도 부여한다. 사전 정보제공 동의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를 위해 사후거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채신화기자 csh9101@

## 자금세탁·테러자금 내부통제의무 강화

앞으로 금융지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차단(CFT) 관련 내부통제의무가 강화된다. 또 특정금융거래 검사수탁기관인 금융감독원 등 10개 기관의 공통 기준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평가를 앞두고 검사·제재 기준을 구체화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더 선진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면제됐던 법 제5조를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특금법 제5조는 ▲의심거래(STR)·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임명 및 내부보고 체제의 수립 ▲업무지침 마련 ▲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이다. 그동안 금융지주·증권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엔 이를 적용하지 않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업자 등은 일부 면제해왔다. 앞으로는 FATF 국제기준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내부통제 관련 감독 강화 추세를 고려해 면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고객확인제도도 개선한다. 금융회사가 법인과 거래 시 고객확인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대표자 실지명의(성명, 주민번호)’로 변경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에선 각 검사수탁 기관에 일관성 있는 절차 및 기준을 부여했다.

제재기준도 구체화한다. 특금법에 규정된 기관·임원·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별 부과 기준을 구체화해 검사기관에 통일된 기준을 제공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채신화기자

# 마음 같아선 한 10개쯤 사고 싶은 매머드급 레지던스 호텔

1가구  
2주택  
해당없음

양도세  
중과  
해당없음

종부세  
해당 무

공실  
위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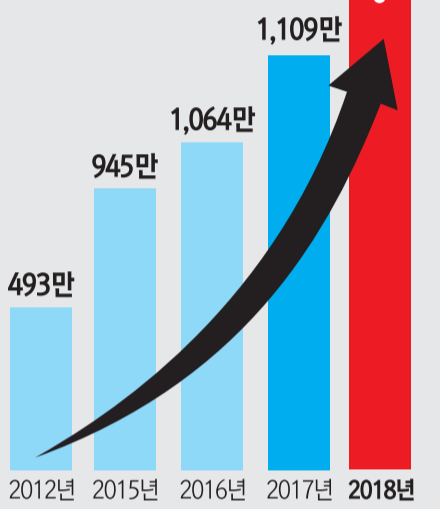
분양권  
전매 가능

## 연간 1,100만 여명 방문의 명소!

### 전주는 1년 내내 축제!

2.17	전주 한벽문화관 설날 문화축제
2.15~3.2	설대보름 맞이 전통문화축전
4.26~5.6	전주 국제영화제
5.5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축제
5.27~9.16	전주 문화재 야행
5.30~5.31	전주 단오제
7.27~7.29	전주 명품 복숭아큰잔치
8.4~8.6	전주 얼티밋뮤직페스티벌
8.10~8.12	가막축제
9.8~9.11	전주 대사습놀이
9.23~9.24	전북 음식문화대전
10월 초	전주 세계소리축제
10월 중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10.26~10.29	전주 비빔밥축제
11.23~11.25	전북 청소년영화제

출처: 전주시청



1,100만 관광객!

## 한옥마을에 재테크 열풍이 분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한국다운 관광지 전주,  
1,100만 관광객 돌파! 5월 '전주국제영화제' 로  
전주에 봄바람이 분다



- ✓ 세계여행잡지 '론리플래닛' 에서 선정한 아시아 3대 관광명소!
- ✓ 1년 내내 축제!  
(국제영화제, 세계소리축제, 한지문화축제, 비빔밥축제, 막걸리축제, 김치축제 등...)
- ✓ 제주도는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호텔공급도 넘쳐났지만,  
전주 한옥마을은 '개발제한지역' 으로 숙박시설 '태부족비상'

**선착순 분양!!!**  
**실투자금 4천만원대**  
**월 120만원/10년 임대보장**  
(법무법인공중/수익금타입별상이/베스트웨스턴플러스전주호텔(주)보장)

**월세가 답이다**  
**연중 관광객은 1,100만!**  
**호텔은 겨우 836실** (출처:한국호텔협회)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 전주호텔 PREMIUM 혜택

### 안심 보장제도

- 호실당 8% 확정 수익 보장 호텔 준공 시(1년 간)    • 1년 치 월세 일시불 선지급 운영사: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제공
- 보증금 일시불 선지급 (호텔 준공 시) 운영사: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제공
- 수익보장 공증서 발행 시행사: (주)메리트플러스 제공

### 계약자 특별 혜택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연 7일 무료 숙박 제공 운영사: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제공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부대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계약자 본인 및 지정인 포함) 운영사: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제공
- 베스트웨스턴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객실 할인 혜택 (전국 6개 지점) BGH 코리아 제공

전주한옥마을 그 중심에 세계 최대 특급 호텔 체인  
베스트웨스턴 수익형 호텔 국내 최초 분양!

총 249실 17.83㎡~52.07㎡    분양문의 **1666-3998**

청약계좌안내	은행 신한은행	계좌번호 100-032-557865	예금주 한국자산신탁(주)
--------	------------	------------------------	------------------

\* 상기 CG 및 이미지, 일러스트 등에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나 반드시 홍보물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프리미엄 혜택은 시행사 및 운영사에서 제공하며, 자금관리 및 신축사인 한국자산신탁(주)과는 무관합니다.  
\* 입주 상태 및 전라감영 복원사업, 한양 주변 교통시설과 주변 현황은 민, 허가 및 청사시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 및 시공사는 이에 무관합니다.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과 베스트웨스턴 인터네셔널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게임공룡 3N, 해외사업이 희비 갈라... 넥슨·엔씨 '맑음'

**넥슨** 순익 4611억 전년비 134%↑  
**매출·영업익·순익 모두 '최대치'**  
**엔씨소프트** '리니지M' 성장 견인  
**넷마블** 신작 부재로 실적 주춤



지난해 연 매출 6조원 시대를 연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업계 공룡 '3N'이 올해 1·4분기 실적에서는 희비가 갈렸다.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글로벌 흥행작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매출 기준 1위를 달성했던 넷마블은 신작 부재로 주춤한 성적표를 받았다. ◆**희비 엇갈린 3N**... 넥슨·엔씨↑ 넷마블↓ 넥슨은 10일 올해 1분기 매출 8953억원(엔화 905억엔, 이하 기준환율 100엔당 989원), 영업이익 5413억원(547억엔)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 21%, 38%(엔화 기준) 성장했고, 순이익도 134% 증가한

4611억원(466억엔)을 기록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이번 분기 실적은 글로벌 성과가 견인했다. 넥슨은 올해 1·4분기 해외에서만 매출액 701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다. 해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4%에 달한다. 특히 중국 서비스 10주년을 맞은 '던전 앤 파이터'는 춘절 업데이트에서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둬 9분기 연속 두 자릿수의 성장을 기록했다. 서구권에서는 출시 3주년을 맞은 '도미네이션즈'가 글로벌 누적 매출 1억5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엔씨소프트도 올 1·4분기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 4752억원, 영업이익 2038억원을 기록해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98%, 570% 증가한 기록이고, 당기순이익은 1192억원을 기록해 같은 기간 대비 585% 늘었다. 이 중 '리니지M' 등 모바일게임 매출은 전체 매출의 56%를 차지해 성장을 견인했다. 로열티 매출은 리니지M의 대만 성과가 반영되며 전분기 대비 41%,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인건비와 마케팅비도 감소해 영업이익이 개선됐다. 반면,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넥슨을 제치고 1위를 달성했던 넷마블은 올 1·4분기 신작 부재로 인해 연결기준으로 매출 5074억원, 영업이익 742억원을 기록해 다소 주춤한 실적을 보여 넥슨에 1위 자리를 넘겼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6.2%, 62.9% 감소한 수치다. 당기순이익 또한

789억원을 기록해 같은 기간 46% 줄었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지난달 30일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을 통해 "일시적인 성장통을 극복해 글로벌 시장에서 넷마블의 성공 공식이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4분기도 신작 출시로 글로벌시장 공략** 올해에도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게임 3사는 신작 출시와 해외시장 공략으로 실적 성장을 노린다. 넥슨은 올해 PC온라인과 모바일을 아우르는 신작을 출시하는 한편,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모바일 게임들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여 상승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피파 온라인4'를 필두로 스웨덴 개발사 스타락 스튜디오가 개발한 액션 게임 '배틀라이트'와 '아스텔리아'가 PC 온라인 게임 라인업에 힘을 보탠다. 국내에서 인기를 얻은 모바일 게임의 글로벌 출시도 줄을 잇는다. '다크어벤저3', '엑스', '오버히트', '야생의 땅: 듀랑고'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고 '마비노기 모바일', '카이저'를 국내 시장에 출시해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넷마블은 2·4분기에 그동안 지연됐던 신작들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매출 반등을 노릴 계획이다. 특히 기존 인기 게임들의 PLC(제품수명주기) 강화와 어드벤처 역할수행게임(RPG) '해리포터: 호그와트 미스터리', 차세대 전략MMO '아이언스톤' 등의 다양한 신작 라인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모바일 대규모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의 사전등록도 2·4분기 중 진행된다. '리니지M'의 인기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받은 엔씨소프트는 신작 모바일 MMORPG 리니지2M, 블레이드&소울 2, 아이온 템페스트 등을 개발 중이다. PC온라인 및 콘솔 MMORPG로 개발 중인 '프로젝트 TL'은 연내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1분기 외환거래 규모 571억달러 '사상 최대'

글로벌 경기 호황 요인

1분기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지난 금융위기 이후 분기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호황에 따른 국내 증권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동향'에 따르면 1분기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현물환 및 외환과생상품 거래) 규모는 571억 달러로 전분기 500억3000만 달러 대비 70억6000만 달러(14.1%) 증가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통계편제 항목을 대거 변경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현물환과 외환과생상품 거래 모두 증가했다. 현물환은 전분기 대비 31억6000만 달러(16.1%) 증가한 일평균 227억8000만 달러 거래됐다. 이 가운데 원/달러 거래는 162억 달러로 24억5000만 달러(17.8%) 증가했다. 외환과생상품은 39억 달러(12.8%) 증가한 343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선물환 거래는 차액결제선물환(NDF·90억6000만 달러)을 중심으로 13억5000만 달러(13.7%) 증가한 112억 달러로 집계됐다. 외환스왑은 24억8000만 달러(12.7%) 증가한 219억5000만 달러 거래됐다.

한은은 "미국 등 주요국 경기가 호황을 보이면서 투자자금이 국내 증권시장으로 유입됐다"며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가 늘면 현물환 거래가,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 투자가 늘면 NDF 등 거래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은 국제수지 통계를 살펴보면 1분기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는 100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 전분기 11억8000만 달러 증가 대비 크게 확대됐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는 229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카카오, 1Q 매출 5554억 '역대 분기 최고치'

**kakao**

영업익 104억원 전년 비 73% ↓  
 게임·음악 콘텐츠 성장세 견인

카카오는 올해 1분기 매출에서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며 역대 분기 최고치를 달성함과 동시에 2017년 1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카카오는 10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 2018년 1분기 연결 매출 5554억원, 영업이익 10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신규 사업 부문의 확대에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는 "2018년 1분기는 카카오의 다양한 성장가능성 보여준 기간"이라며 "카카오톡

의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월간 이용자수 5000만명을 돌파하며 매분기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문별 실적을 보면 콘텐츠 부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늘어난 2856억원을 기록했다. 게임 콘텐츠 매출은 프렌즈마블, 그랜드체이스 등 신규 모바일 게임 거래액 증가, 검은사막 매출의 견조한 성장, 카카오 VX의 연결 종속회사 편입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한 1056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음악 콘텐츠 매출은 카카오와 카카오 M 플랫폼 간의 시너지 효과가 가속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한 1263억원을 달성했다.

기타 부문 매출은 선물하기, 카카오 메이커스 등 커머스 매출 증가와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등 신규 사업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3% 성장한 1152억원을 기록했다. /쿠서윤 기자 yuni2514@

## 컴투스, 1Q 영업익 394억... 전년비 21.3% ↓

**com2uS**  
**컴투스**

해외 매출 감소·마케팅비 실적 요인  
 IP 확장·신작 라인업으로 시장 공략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의 올해 1·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21.3% 감소했다. 이번 실적 감소는 원화 강세로 인한 해외 매출 감소 및 신작 마케팅비가 증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투스는 올해 1·4분기 매출 1140억원, 영업이익 394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5.2%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0.5% 감소한 365억원을 기록했다.

컴투스는 "전체 매출의 85%를 해외시장에서 거뒀으며 특히 북미와 유럽 등 서구권 국가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글로벌 게임 지식재산권(IP) 확장 및 다양한 신작 라인업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대표작인 '서머너즈 워'의 흥행을 위해 지난달부터 출시 4주년을 기념하는 프로모션을 열고 있으며, 올해 두차례에 걸친 대규모 프로모션 업데이트도 계획하고 있다. 북미 유력 콘텐츠 제작자와 함께 '서머너즈 워'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코믹스, 애니메이션 등도 제작하고 있다.

올해 기대 신작 출시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출시 이후 전략 게임 유저층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체인 스트라이크'를 시작으로 액티비전의 유력 IP 기반의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게임,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할 '서머너즈 워 MMORPG' 등의 대작 게임이 준비되고 있다.

이외에도 높은 자유도의 샌드박스 플랫폼 '덴스빌', 캐주얼 골프게임 '버디크러시', 신개념 턴제 RPG '히어로즈워' 등 다양한 장르의 신작을 준비중이다. /김나인 기자



북 여류 미국인 3명 美 도착... 트럼프 직접 마중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김동철씨(오른쪽 두번째)가 1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리며 양 팔을 올려 두 손으로 승리의 비(V)자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그 모습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 롯데면세점, 베트남 캄라인국제공항 10년 계약

롯데-베트남 현지법인 합작  
 임·출국장 합계 1670㎡ 규모

현재 베트남 다낭공항에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가 베트남 남부 휴양지 나짱 인근 캄라인 국제공항에서도 10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롯데와 베트남 현지법인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롯데PK가 이달 22일 캄라인 공항에 임·출국장 매장 합계 1670㎡ 규모의 면세점을 개장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10년으로 다음 달 6일 베트남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열린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응우옌 부 두 주한 베트남대사를 만나 롯데면세점이 캄라인 공항에 개장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가 배려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은 이 면세점이 한국과 베트남

의 경제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설이며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올해 3월 열린 한국-베트남 정상 회담의 성과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1차 한국-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와 제3차 한국-베트남 금융협력조정위원회를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달했다.

또 호찌민과 나짱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나 호찌민-하노이 지하철 등 기반시설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두 대사는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신경제 특구에 한국 기업이 투자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 차관은 특구를 개발하도록 베트남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불나도 쥐꼬리 보상금... '전통시장 화재공제' 걸돈다

가입점포 4.35%... 공제부금 7.5억  
보험료 10만원·사고 공제금 2천만원

예산당국 '정부지원 못해' 입장 강경  
정책성 보험 도입방안 마련 절실

'반쪽짜리'로 시작한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상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가 222건이고 이에 따른 재산피해만 520억원 규모에 달하는 등 전통시장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상부상조 성격의 화재공제조차 가입이 미진한 모습이다.

특히 화재공제가 안착되기 전에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당초 계획했던 수 십억원 규모의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해 확보도 하지 못한 상태다.

2005년 당시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민간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만 96억원 정도였던 점을 상기할 때 가입자가 늘고, 공제부금이 쌓여야 하는 초기 수 년간은 불안한 운영을 할 수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 및 피해규모>

/자료=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분	발생건수(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사망	부상	
2013년	40	-	2	193
2014년	45	1	1	944
2015년	42	-	4	894
2016년	64	-	6	47,921
2017년	31	-	1	2,113
합계	222	1	14	52,065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료 예시>

구분	가입금액	건물구조	공제료(원)
예시1	2천만원	A급	66,000
예시2	건물 : 1천만원 / 동산 : 1천만원	B급	101,500
예시3	6천만원	A급	198,000
예시4	건물 : 3천만원 / 동산 : 3천만원	B급	304,500

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한 화재공제가 만에 하나 초대형 화재가 발생한다면 '강통 계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10일 이찬열 의원실과 중기부, 소진공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지금까지 가입 대상인 약 20만개 점포 가운데 4.35% 수준인 9100여 곳만 가입한 것으

로 집계됐다. 1년 5개월가량 모인 공제부금도 7억5000만원에 못미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화재공제는 1년 기준으로 적게는 6만6000원부터 많게는 10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건물구조등급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단순화해 민간보험사가 가입을 꺼리는 전통시장 점포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10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도 향후 사고 발생시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자가 점포, B급 건물 기준)은 건물 1000만원, 동산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이 전부다.

실제 상인들이 입은 피해액보다 공제금이 터무니 없이 작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일반 보험사의 화재보험 상품 가입도 불가능할 경우 화재공제만 쳐다보기엔 부족한 금액일 수밖에 없다.

상인들과 상품 상담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공제상담사도 첫 해인 지난해엔 17명이 고작이었다.

다만 소진공은 최근 추가 채용을 통해 상담사 인력을 31명까지 늘렸다. 여전히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화재공제가 지금은 1년씩 단기계약만 가능해 장기고객 확보도 중요한 숙제다.

소진공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기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상인들이 장기간 화재공제에 가입,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화재뿐 아니라 식중독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화재공제가 안착하기 전까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비 마련도 큰 숙제다. 현재까지 모인 7억5000만원의 공제금은 화재 사건 하나로 순식간에 바닥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상호부조하는 공제 성격에 맞지 않아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는 예산당국의 강경한 입장이 문제다. 이는 지난해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중기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이찬열 의원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 107건, 부주의가 52건 등으로 노후화, 사용자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엔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민영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실은 지금의 화재공제가 위로금 성격에 머물고 있고 상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지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상인들이 20~30% 정도의 보험료만 내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보험 도입 모색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회용 비닐봉투 없애고 페트병 무색으로

###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2030년 플라스틱 폐기물 절반 감축  
재활용률 기준 34%→70%로 확대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현재의 절반으로 감축하고, 재활용률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2020년까지 무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제품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각 순환 단계별 개선책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제조·생산 단계부터 재활

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모든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이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 플라스틱 제품 등은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된다.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거 거부 논란이 벌어진 비닐류는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한다.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재활용 업체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히 연관되는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 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저감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서는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감사 성적서'를 확인하도록 해 과대 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0월까지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 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월까지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 과대 포장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일회용 컵의 경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수준의 가격 할인, 매장 내 머그잔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하도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우수 중견 70곳 청년 2000명 채용

중견기업 일자리 드림 페스티벌  
대졸신입 평균연봉 3200만원 ↑

국내 우수 중견기업 70여 곳이 올해 청년 2000여 명을 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우수한 중견기업을 소개하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텡(SETEC) 제1전시관에서 '중견기업 일자리 드림(Dream)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 등 중견기업 73개 회사와 대학생 등 청년 구직자 40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기업은 반도체·전자, 기계 등 제조업 분야 46개사와 서비스·유통, 소프트웨어(SW) 등 비제조업 분야 27개사로 이들은 올해 안으로 약 2000명(상반기 중 약 500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기업들은 평균 매출액 3600

억원 이상,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 3200만원 이상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잡매칭 시스템을 채용 모든 과정에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시범 적용된 인공지능 잡매칭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통합 역량검사 → 면접 → 기업-구직자 매칭'까지 채용 모든 과정에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스펙보다는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10일부터 2주간 약 2700명이 온라인으로 통합 역량 검사와 면접을 사전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날 400여 명의 구직자가 사전 매칭된 기업과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백운규 산업부장관도 이날 개막식 참석에 앞서 청년 구직자를 직접 만나 격려하고 취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추경예산안 등 청년 실업을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도 소개했다. /세종=최신용기자

## 농식품부, 쌀 5만t 중동·아프리카에 원조

식량원조협약 가입 후 첫 출항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에 따른 쌀 5만톤 원조 출항 기념식을 10일 군산항 제5부두에서 가졌다.

쌀 5만톤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기아인구 약 100만 명에게 6개월 간 식량구호가 가능한 규모로 이번 원조용 쌀은 6월부터 8월까지 에덴(1만7000톤), 에티오피아(1만5000톤), 케냐(1만3000톤), 우간다(5000톤) 등 4개국에 지원될 예정이다. 원조규모로 보면 FAC 16개 회원국 중 미국, 유럽연합(EU) 등에 이어 6번째에 달한다.

이번 첫 출항은 군산항에서 선적한 쌀 총 2만2000톤이며 출항 이후 6월 중 에덴아덴(Aden) 항구에 1만2000톤이, 에티오피아 지부티(Djibouti) 항구에 1만톤이

전달된다.

이번 원조용 쌀은 지난 2016년에 생산돼 정부가 보관하던 쌀로 농식품부는 긴급구호 성격을 고려하고 장마철 도래 이전 출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공 및 국내 운송 등 선적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가공 및 선적 절차는 농식품부가, 해상운송 및 현지 배분은 세계식량계획(WFP)이 담당하고 있으며 원조 이후 배분 현황, 현지 반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FAC 가입에 따른 쌀 원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가는 동시에 식량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유일한 나라로 국가적 위상을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구례군 용방면 사리리 서시천변에 있는 꽃강에 유채꽃이 봄바람과 함께 노란색 물결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겨울 동해와 봄철 이상 기온으로 올해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유채가 현재 만발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길이 1.5km, 면적 51,000㎡(축구장 약 7개의 면적)의 꽃강은 2017년 꽃강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천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친수공간 제공 등 하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성하였다. 한편, 유채꽃은 이번 주말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구례=오인석 기자 gunguck@

# 해양쓰레기에 뒤덮인 전남 해안

연 4만톤 절반 외국서 떠내려와  
여수>신안>고흥>목포>영광 순  
“효율적 관리대책 강구할 것”

전남 인근에서 연간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가 최대 4만여에 달할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1만8000여은 처리되지 않아 해안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전남도가 사단법인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에 의뢰한 해양 쓰레기 발생량 조사 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2만2천879t~4만575t으로 추정됐다.

외국에서 유입된 쓰레기양이 3천960t~2만1천120t으로 추정되면서 전체 발생량 추정 범위가 넓어졌다.

해양 쓰레기 발생량은 육상, 해상(외국 포함) 유입량을 더한 값이다.

최대량 기준으로 전체 발생량의 절반 정도가 중국 등 외국에서 떠내려 왔다는 의미다.

육상 쓰레기는 강수량이 많은 7~9월 90% 이상인 5천47t이 하천 등을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에서는 어선에서 7천989t, 양식



/픽스타

장에서 3천831t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 어업 유형별 발생량 비중은 자망 41.1%, 복합·기타 35.4%, 근해 17.6% 등이었다.

지역별로 여수, 신안, 고흥, 목포, 영광, 완도, 진도, 장흥 등 순으로 많았다.

양식 품목별로는 김(55.5%), 미역(20.0%), 굴(12.3%), 다시마(7.4%) 등 순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다.

전남에 남아있는 쓰레기는 침적·부유량을 빼고 해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1만8천589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추정치는 그동안 이뤄진 연구 조사와 대면 설문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정확한 수치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방대한 추정량은 효율적인 관리 대책의 시급성을 시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원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해양 쓰레기가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바다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알아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오는 10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 보성군, 지역현안 도지사 후보에 건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7개 사업

보성군은 6.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의 현안사업과 SOC사업을 발굴해 전남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현안과제들이 도지사 공약으로 선정될 경우 민선7기 임기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군에 따르면 주요 현안사업은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의향남도 중심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전라남도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및 현충시설 국가관리 추진' ▲보성소리의 세계화와 계승발전을 위한 '세계문화유산 판소리성지 명소화사업 추진' 등 7개 사업이다.

SOC사업은 ▲남중권 상생 실크로드

실현을 위한 '국도 77호선 노선변경' ▲인접시군과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보성 북내~화순 남면간 도로개설' ▲주요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보성강 댐 내 퇴적토 준설사업' ▲남해안 해상물류 전진기지로의 도약을 위한 '보성 울포항 국가어항 지정' 등 4건이다. 규모는 총 11개 사업에 3086억 원이다.

군은 발굴된 건의사업을 각 후보캠프에 전달하여 민선7기 현안과제의 매듭을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유현호 군수 권한대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남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과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며, “민선7기 출범 후에도 우리군 현안사업들이 도정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보성=문병환 기자 m8527188@



장흥군

## 재난·화재 대응훈련

장흥군(군수 김성)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장흥종합병원 주차장에서 장흥종합병원 화재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진소방서, 의용소방대, 민간단체 등 11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이날 훈련은 장흥종합병원 화재대피 자체현장 매뉴얼에 근거해 훈련을 진행한다.

실제상황에 준해 훈련을 실시해 매뉴얼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매뉴얼 정비를 할 계획이다. /전남 장흥=이진오 기자 alice1008@

## ‘천불의탑 신비’ 운주사, 문화향연 펼쳐

석가탄신일을 맞아 천불천탑의 신비를 간직한 운주사에서 다채로운 문화향연이 펼쳐진다.

전남 화순군은 10일 '꿈꾸는 복두, 일어서는 와불'을 주제로 한 2018 화순운주 문화축제가 21일부터 22일까지 도암면 운주사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화순운주문화 축제(공동위원장 박병교·도정스님)는 6개 부문 38개 행사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1일 첫째 날에는 도암농악단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개막식에 이어 야외음악

회가 열린다.

둘째 날인 석가탄신일에는 글짓기 대회와 청소년댄스 경연대회와 화순문화원 공연, 비보이 댄스공연, 국악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 지역민과 관광객이 하나가 되는 탑돌이, 와불세우기, 소원 풍선 날리기도 이어진다.

박병교 추진위원장은 “석가탄신일에 가족과 함께 운주사를 찾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도 간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전남 화순군은 9일 추석명절 연휴 기간 '천불천탑'의 신비를 간직한 운주사에 하루 최고 2000여명의 탐방객이 찾았다고 밝혔다. /뉴스1

## 관광도시 여수, 호텔 등 신규투자처 각광

3년 연속 국내 최고 국제해양관광도시로 인정받은 여수시에 수익형 호텔이 들어선다.

일성건설은 호텔 케니스토리 여수점이 여수시 충무동 일대에 이만달 내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호텔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8층, 전용 면적 15~20㎡으로 객실은 총 195개이다.

호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전매제한도 없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다. 또 상가, 오피스텔에 비해 낮은 투자비용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시는 꾸준한 관광자원 개발로 인해 매년 많은 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2015년부터 3년 연속 관광객 1300만명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1500만명을 돌파했다.

호텔 케니스토리가 들어서는 충무동은 여수시 구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며 남만포차, 벽화마을, 맛집 거리, 이순신광장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있다.

편리한 도심에서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등 바다 조망도 가능하고, 주변에 수산시장, 교통시장, 서시장, 중앙시장 등 상권도 밀집돼 있다.

우수한 교통여건도 갖추고 있다. 여수 엑스포역 및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여수공항 등이 인접해 있으며 여수엑스포역까지 10분 내외, 여수공항까지 30분 내외면 갈 수 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4월 2018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국제해양관광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여수 밤바다 및 낭만버스킹, 낭만포차, 낭만버스 등 낭만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지난해 하늘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관람할 수 있는 스카이 투어가 취향해 육해공 투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카약, 윈드서핑 등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과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섬 여행, 바다를 끼고 달리는 자전거코스 등도 호평을 받았다.

여수시는 “관광객의 원도심 집중에 대비해 여수 밤바다 야경코스를 웅천과 소호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시민 중심의 관광정책을 통해 최고의 행복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김남중 기자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모나콜린K의 힘

홍국쌀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신비의 붉은 빛 물질 모나콜린K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혈관 청소를 돕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을 유지시킵니다.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마늘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 본그룹 자회사 순수본 비전 선포 “본죽 넘어 유동식 글로벌 1위로”

2025년 매출 1000억원 목표  
중장기 단계별 로드맵 제시  
0세~100세 유동식사업 진출

“순수본은 국내외 해외 유동식 시장을 동시에 공략해 나가는 전략으로 2025년 내 1000억원의 매출 달성을 이뤄내겠습니다.”

맞춤형 유동식 생산 전문 기업 순수본이 영유아식을 시작으로 메디푸드, 시니어식 등 전 연령 프리미엄 유동식 생산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향후 2025년까지 1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순수본은 10일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 구축한 맞춤형 유동식 전문 생산·제조·판매 시설인 ‘본라이프푸드랩’에서 진행된 비전 선포식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순수본은 비전 달성을 위해 향후 2025년까지 국내외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을 담은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2025년까지 ▲영유아식 브랜드 ‘베이비본’을 통한 국내 이유식 시장주도 ▲메디푸드, 시니어식 등 전 연령 프리미엄 특수영양식 즉 라인업 구축 ▲유아부터 성인까지 건강관리 큐레이션 플랫폼 서비스 론칭 ▲코스닥 상장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심의 쌀 분말 수출 ▲한국 유기농 식재료 수출 ▲수출용 이유식 완제품 개발 및 수출 등의 전략을 통해 국내 최고의 맞춤형 건강유동식전문기업을 넘어 세계인의 행복한 식탁을 책임지는 식품 기업으로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프리미엄 이유식 브랜드 ‘베이비본’을 상품 출원하고 6월부터 생후 4~5개월의 준비기 10종부터 초기 28종, 중기 28종, 후기 42종, 완료가 42종, 반찬 16종 등 총 166종의 제품을 선보인다. 2019년



김용태 순수본 대표이사가 10일 전북 익산 ‘본라이프푸드랩’에서 진행된 비전 선포식에서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순수본

까지 지속적인 영유아식 제품 연구개발을 통한 전문화 및 고급화로 국내 이유식 시장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베이비본은 이유식에서 가장 중요한 ‘물’의 차별화를 위해 ‘순수워터케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한다. 공급되는 물의 정수 처리 과정은 1차 활성탄 여과를 거치고 마이크로 필터를 통하여 이물질 제거하고, 제품에 투입되기 전 자외선 살균기와 마이크로 필터 여과 방식을 도입해 물의 품질을 더욱 높인다. 여기에 물 감별사(워터 소물리에)의 정기 검증 및 정기적인 자체 수질 검사도 시행한다.

또한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포장재와 환경호르몬과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용기 등을 사용해 프리미엄 이유식 이미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유식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5도 이하의 급속냉각 공정을 통해 포장한 제품을 은나노 항균 아이스팩을 함께 동봉하고,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에어 완충재를 넣어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나아가 냉장 배달 전용 상품 외에 휴대용 상품 개발을 통한 생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영유아식을 넘어 전 연령층에 대한 라인업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메디푸드, 시니어식 등 전 연령 프리미엄 즉 라인업을 완성하고, 생애 주기별 특수 영양식을 바탕으로 육아 고민, 건강

정보, 영양 균형과 올바른 식문화를 제공하는 ‘평생건강 지킴작 프로젝트’ 사업을 준비 중이다.

영아부터 키즈까지 맞춤형 푸드케어 서비스와 더불어 유아부터 성인까지 자신의 건강과 식단관리를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점검하고, 이에 맞는 정보를 추천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큐레이션 플랫폼 서비스도 론칭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2025년에는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 시장의 경우, 2019년까지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국내산 프리미엄 유기농 쌀 분말을 수출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수출용 친환경 이유식 완제품 개발 및 수출과 더불어 국내산 프리미엄 이유식 식재료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김용태 순수본 대표이사는 “프리미엄 이유식 브랜드 ‘베이비본’을 필두로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맞춤형 건강유동식전문기업으로써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수본은 ‘본죽’, ‘본죽&비빔밥 카페’와 ‘본도시락’, ‘본설렁탕’ 등의 한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아이에프와 직영 외식과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는 본푸드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본그룹의 자회사다.

/박인용 기자 parkin7854@metroseoul.co.kr

# ‘4월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이호석 성지기공 대표 선정

## 중기벤처부-중기중앙회

물탱크 제조기업인 성지기공의 이호석 대표(사진)가 ‘2018년 4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뽑혔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69년 당시 보일러 회사 견습공으로 시작한 이 대표는 무궁화기계, 성지기공을 잇따라 설립하는 등 기계설비업계에 50년 가량 종사하며 성지기공을 물탱크 업계 선두기업으로 키웠다.

2010년에는 충남 서산에 제2공장을 준공, 당시 연간 169억원이던 매출을 2012년에 265억원으로 성장시켰다. 지난해 매출은 283억원을 기록했다.

이 대표가 가장 집중한 것은 기술개발이다. 기술개발 전담부서를 통해 2011년에 보온이 가능하고 오염이 적은 PDF 판넬을 사용한 물탱크를 무용점으로 생산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 물탱크 설치 기초공사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콘크리트 패드 공법을 탈피해 높이 조절이 가능한 조립식 기초 패드 공법을 개발하고 공기단축과 비용 절감을 실현하는 등 제품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대표는 오랜 수공기간과 업종의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금속탱크공업협회동조합 이사장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천지회장을 맡고 있다. 매년 5~10% 수준의 급여 인상과 성과에 따른 상여금제도를 도입해 근로자 임금인상과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등 근로자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미세먼지 해결 좋은 방법 있을까요?”

## 미세먼지 R&D 협의체 구성 국민 아이디어 공모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방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모은다.

정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를 구성하고 ‘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 R&D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범부처 협의체는 우선 11개 기관이 소관 부문별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R&D를 집대성한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PTR)을 공동 수립해 각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초 및 응용·개발 연구 간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과기혁신본부 등 R&D 예산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대학생, 대학원생, 산·학·연 연구자 및 일반 국민 등 사회 구성원의 미세먼지 R&D 관련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범부처 신규 사업을 기획해 미세먼지 연구개발이 부족한 분야나



미세먼지로 가득한 서울 여의도 모습. /연합뉴스

국민 체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R&D 관련 아이디어가 있는 일반 국민은 1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국민 생각함’을 통해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연구재단·기획마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다. 접수된 국민제안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가 실현 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등을 분석해 후보군을 우선 선정하고, 후보군으로 선정된 제안자는 6월 1일로 예정된 ‘국민 참여 토론회’에서 아이디어를 공개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대한상의 민간싱크탱크 설립 초대원장에 한은 출신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달 초 민간 싱크탱크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 출범시킨다고 10일 밝혔다. 초대 원장에는 한국은행 최초의 여성 임원으로 임명됐던 서영경 전 부총재보(사진)를 위촉했다.



박용만 회장의 주도 아래 설립된 SGI는 성장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SGI는 기업들의 올바른 상황 인식을 도울 수 있도록 경제 상황을 균형감 있게 진단하여 알리는 한편, 미래 성장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GI는 종래의 연구소가 수행해 온 거시경제 동향과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경제 아젠다’를 설정하고 근본 원인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성장과 혁신 ▲일자리 ▲고령화 대책 ▲남북 관련 아젠다 등을 주요 이니셔티브로 설정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 이사라 교수, 골반저초음파 검사 노하우 발표

###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이대목동병원은 산부인과 이사라 교수(사진)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제20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춘계연수강좌에서 ‘경회음부초음파검사’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골반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골반저초음파검사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이사라 교수는 2015년 ‘임상 골반저초음파검사, 기초에서 응용까지’를 공동 번역, 출판하는 등 골반저초음파 분야 전문가로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골반장기탈출증과 요실금 등 다양한 골반저질환의 진단에 쓰이는 골반저초음파검사는 배변 조영술, 자기공명촬영(MRI) 등 기존 검사 기법들에 비해 방사선 피폭이 없으며 검사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외래에서 바로 정적, 동적 검사가 가능하고

결과를 빨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사라 교수는 이날 연수강좌에서 요실금 수술 후 증상이 재발하거나 오히려 질박노가 심해져 병원으로 오는 환자들에서 골반저초음파검사로 원인을 밝혀 정확한 수술 전 진단을 통한 성공적인 재수술로 치료한 증례들을 발표했다.

또한 골반장기탈출증의 다구획 결손을 골반저초음파검사로 정확히 진단한 사례, 다른 병원에서는 원인 모를 성교통을 동반한 골반장기탈출증으로 진단되었다가 골반저초음파검사를 통해 요도계실이 원인임을 밝혀 수술로 치료한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요도계실 진단에 따른 골반저초음파검사의 유용성에 대한 사례는 2017년 10월 미국산부인과학회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박인용 기자



허일섭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이사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GC녹십자와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이 경기도 용인 GC녹십자 R&D센터 WEGO강당에서 열린 창립 34주년 기념식 후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 /GC녹십자

## 34주년 목암생명과학 “글로벌 연구소 도약”

### GC녹십자 R&D센터서 기념식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GC녹십자 R&D센터 WEGO 강당에서 창립 34주년 기념식을 갖고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연구소로의 도약을 다짐했다고 10일 밝혔다.

허일섭 이사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좋은 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과정이

멀고도 험하지만 머지 않아 모든 연구원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승현 소장을 중심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뛰어난 연구성과를 나타낸 우수연구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 편의점 카페, 여름맛이 '리뉴얼'... '고급원두' 신메뉴 출시

커피 찾는 소비자 매년 증가 추세  
편의성 높이고 선택의 폭 넓혀

새로운 커피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편의점 카페가 커피 메뉴를 리뉴얼했다. 무더위가 예년보다 더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자 차가운 음료에 대한 고객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GS25, 세븐일레븐 등이 편의점 내에서 운영하는 카페의 메뉴를 확장하고 원두를 프리미엄급으로 변경했다.

우선 GS25는 Cafe25의 하절기 신메뉴 2종 아이스 카라멜라떼와 아이스 카페모카를 출시, 우유 패키지를 변경해 개봉 편의성을 높였다.

지금까지 카페25의 아이스 라떼류는 고객이 직접 얼음컵에 멸균우유 120ml 한 팩을 개봉한 뒤 얼음컵에 부어서 전자동머신에서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섞어 제조하는 방식으로 판매됐다.

GS25는 팩 형태의 우유를 직접 잘라서 개봉해 컵에 붓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 자켓과 손잡고 우유 패키지를 개봉이 편리한 액체 상태의 파우치형태로 개발했다.

차현민 GS25 원두커피 담당자는 "합리



세븐일레븐이 지난달부터 아이스 전용 원두에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 인증을 받은 생두를 30% 사용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적인 가격에 맛과 향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카라멜라떼와 모카라떼를 출시하며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지속적인 메뉴개발을 통해 전문점 수준의 커피를 제공하며 고객들의 가슴비를 만족시

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이 운영하는 세븐카페는 지난달부터 업계 최초로 아이스 전용 원두에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 인증을 받은 생두를 30% 사용하여 프리미엄의 가치를 한층 높였다. 무엇보다 하

절기 매출 극대화를 위해 원두 품질 개선에 힘썼다.

기존보다 더욱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구현하기 위해 아이스 전용 원두 구성도 변경했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원두인 콜롬비아산(50%)을 중심으로 브라질(30%), 우간다(20%)로 배합 기준을 바꿨다.

아이스레귤러 상품(16oz)도 새롭게 선보였다. 기존에는 아이스 라지(20oz)만 판매했었으나 소비자 선택 폭 확대를 위해 레귤러 상품을 올해 4월부터 신규 추가했다.

CU는 여름을 대비해 아이스드링크 '텔라페'의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텔라페 매출은 지난달 같은 기간 대비 205.9%나 훌쩍 뛰었다. 생수, 탄산음료 등 다른 음료가 10%대 신장률을 보인데 비해 20배나 큰 신장 폭이다.

전경훈세븐일레븐커피담당MD는 "일반적으로 평균 최고기온 20도 안팎을 보이는 4월 중순부터 아이스 음료에 대한 고객 수요가 높아지기 시작한다"며 "이번 세븐카페 아이스의 품질 개선으로 고객분들께 저렴하면서도 훌륭한 맛의 커피를 제공하는 한편 편의점 원두커피 위상도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업계가 자체 카페의 신제품을 꾸준히 선보이는 이유는 편의점 커피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GS25의 원두커피 매출은 지난 2015년 12월 카페25를 론칭한 이후 2015년 67.1%, 2016년 242.7%, 2017년 268.9%로 매년 200%를 넘는 성장률을 보이며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판매량 역시 2016년 2,300만잔, 지난해 6,400만잔이 판매되며 출시 27개월만에 지난 3월 누적 판매량 1억잔을 돌파했다. GS25는 현재 8500개 점포에서 카페25를 판매하고 있으며 취급 점포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세븐카페는 지난 2015년 1월 선보인 편의점 업계 최초의 원두커피 브랜드로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8500만잔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4700여 점포에서 판매중이며 올해(1~3월)도 전년 대비 30.5%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또 세븐카페의 월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4월부터는 아이스커피 매출 비중이 30%를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세가 본격화된다. 이어 5월에는 48.0%까지 오르고 7월에는 82.1%까지 구성비를 보이며 정점을 찍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CJ오쇼핑·CJ E&M 합병법인 통합사명 CJ ENM으로 새출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CJ오쇼핑과 CJ E&M의 합병법인 사명이 'CJ ENM'으로 내정됐다. ENM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and Merchandise)"의 약자로 국내 최고의 콘텐츠 역량과 상품기획 역량을 갖춘 CJ E&M과 CJ오쇼핑이 결합해 국내 최초의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커머스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양사는 지난 1월 합병 계획 발표한 직후부터 합병법인의 사명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업(業)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회사의 지향점과 일치하며 CJ E&M과 발음이 유사해 기존의 브랜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CJ ENM'을 최종 사명으로 낙점했다.

CJ오쇼핑과 CJ E&M 양사는 신규 사명의 의미와 합병법인의 지향점을 사내 구성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

하며 양사의 결합 의지를 다졌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사명은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의결을 거친 뒤 합병법인 공식 출범일인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단 CJ오쇼핑, tvN, Mnet, CJmall 등 양사에서 사용중인 서비스와 브랜드는 사명 변경 이후에도 당분간 변경 없이 운영된다.

양사는 지난 9일 주요 주주 및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합병법인의 비전 및 사업 전략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CJ만의 강력한 프리미엄 콘텐츠와 시너지 창출로 콘텐츠와 커머스가 융복합 된 글로벌 신규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허민희 CJ오쇼핑 대표이사는 "통합법인의 국내외 잠재고객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프리미엄 콘텐츠와 차별화된 커머스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윌트디즈니, 타임워너 등과 경쟁하는 세계적인 융복합 콘텐츠 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 롯데제과 '조스바·스크류바·수박바' 바디케어 등장

롯데제과가 토탈 바디케어 브랜드 해피바스와 손잡고, 자사 제품인 조스바, 스크류바, 수박바(이하 조크바)의 콘셉트를 활용한 바디케어 제품을 선보였다고 10일 밝혔다.

조크바는 작년부터 컵, 치어팩 등 새로운 포장 형태로 선보이거나 껌, 캔디, 젤리, 의류 등 새로운 제품으로 출시하는 등 변신을 계속해왔다. 이번에는 색다른 바디케어 제품으로 변신의 폭을 넓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립밤, 스크럽, 섰크림, 섰스틱, 수딩젤 등 총 9종이다.



조크바 특유의 과일 향을 그대로 살렸다. 포장 디자인도 각 브랜드의 캐릭터로 재구성하여 재미를 준다. 일부 제품(스크럽, 수딩젤)은 아이스크림에서 착안, 투명한 치어팩 케이스에 담은 등 특이한 모양을 살려 신선함을 줬다. /박인용 기자

## 성큼 다가온 무더위에 얼리 슬리밍 '열풍'

(Slimming·체중감량의 포괄적인 의미)

올리브영 슬리밍 카테고리 71% 신장  
섭취·휴대하기 쉬운 제품 인기 상승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몸매 관리를 위해 슬리밍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올리브영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슬리밍 카테고리 매출을 살펴본 결과 전년 대비 71% 신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른 무더위에 대비하는 고객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우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슬리밍 제품을 찾는 고객이 많아졌다. 특히 언제 어디서든 섭취가 가능하도록 휴대가 용이한 제품이 인기다. 실제 올리브영의 5월 슬리밍 인기제품 TOP10을 분석해보



한 고객이 올리브영 슬리밍 매대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면 무려 5개가 파우치 타입의 휴대 간편 제품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국에 상륙한 나캣타코토니는 최근 '나캣타코토니 스루스루' 신제품을 출시했다. 카테킨 녹차추출물과 비타민C가 함유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며 물에

타먹는 타입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포만감을 주면서 칼로리가 낮은 '글램디 곤약 워터젤리'도 반응이 좋다고 올리브영 측은 설명했다.

한편 올리브영은 여름을 준비하는 슬리밍족을 겨냥한 '얼리 슬리밍(Early Slimming)' 대전을 실시한다. 나캣타코토니, DH C, 글램디, 칼로아웃 등 올리브영 인기 슬리밍 브랜드 일부 제품 대상으로 최대 46% 할인행사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다양한 슬리밍 제품 열풍 속에서 각자 취향에 맞는 제품으로 따져보고 구입하는 구매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며 "올리브영은 다가오는 여름에 '건강한 아름다움'을 도와줄 관련 제품군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 쉐이크쉐크 '마이크 셔먼' 그래픽 티셔츠 등 선봬

분더샵 '케이스터디'와 협업 진행  
오늘부터 2주간 두타점 등서 판매

SPC그룹은 캐주얼 브랜드 쉐이크쉐크와 '분더샵'의 스니커즈 전문 매장 '케이스터디'와 콜라베이션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케이스터디'에 입점한 미국 브랜드 '차이나타운마켓'과 협업했다. '차이나타운마켓'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이크 셔먼'이 2016년 LA에서 론칭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팬을 확보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다.

쉐이크쉐크는 협업 제품으로 '마이크 셔먼'의 개성 있는 그래픽이 디자인된 티셔츠와 모자, 가방을 선보인다. 제품은 5월 11일부터 약 2주간 쉐이크쉐크 두타점, 청



담점, 센트럴시티점과 분더샵 청담에서 판매한다. 또한 같은 기간 '마이크 셔먼'이 디자인한 쉐이크 컵 슬리브를 쉐이크쉐크 전 매장에서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사이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CJ제일제당 신개념 토핑 펫푸드 첫 선

CJ제일제당은 국내 최초로 사료 위에 유산균을 뿌려먹는 신개념 토핑 펫푸드 '오네이치 하루케어' (사진)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오네이치 하루케어는 사료와 유산균 스틱포를 함께 구성한 제품이다. 반려견에게 사료를 급여할 때 함께 동봉된 유산균을 사료 위에 뿌려주는 새로운 콘셉트의 펫푸드다.

사료 제조 과정에서 유산균을 첨가할 경우 고열에 유산균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유산균을 별도 포장해 뿌리는 순간까지 살아있는 상태로 보존 가능하도록 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토크쇼 나선 박인비 “워라벨, 골프에도 꼭 필요”

## KB금융, 워라벨 확산 위해 콘서트

KB금융그룹은 지난 9일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그룹 임직원 200명을 초청해 박인비 선수와 함께하는 ‘KB워라벨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워라벨(Work & Life Balance)’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퍼팅 대결, 애장품 증정 및 단체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박 선수는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 3년여 만에 세계 1위를 다시 탈환한 소감을 비롯해 골프와 개인의 삶에 대한 생각들을 진솔하게 털어 놓았다. 최근 퍼터를 바꿔 우승한 과정을 언급하며, 정상에 자리에 있지만 항상 변화를 추구하며 최고의 기량을 지속적으로 펼치려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소개했다.

또 뱅크오브호프 파운더스컵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나의 30대에도 골프 인생과 개인의 삶



지난 9일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대강당에서 진행된 ‘KB워라벨 토크콘서트’에서 박인비 선수와 KB금융 임직원들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

에 있어 균형을 잘 유지하고 싶다”고 밝힌 것처럼 ‘워라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5년에 반려견 ‘세미’ 때문에 대회를 포기했던 사연을 이야기 하면서 참가자들과 함께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 보

기도 했다. KB금융 임직원들은 박 선수와 격의없는 소통을 나눈 것은 물론 족석에서 퍼팅 대결을 펼치며 직접 원포인트 레슨도 받았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우리은행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 행사

우리은행은 제주 애월읍 소재 광금초등학교 학생 42명을 초청해 ‘도서벽지 어린이 서울초청 행사’를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농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1984년부터 35회째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환영식을 시작으로 ▲우리은행 방송국 및 은행사박물관 견학 ▲청와대 방문 및 직업 체험 등 3박4일 기간 동안 주요 시설 견학과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지난 9일 행사에 참여한 제주 애월읍 소재 광금초등학교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2018 넷마블게임소통교육 부모공감클래스

Ok! Talkey

## 넷마블문화재단 게임소통교육 참가자 모집

넷마블문화재단은 2018년 넷마블게임소통교육 부모공감클래스 ‘오키토키(Ok! Talkey)’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부모공감클래스 ‘오키토키’는 넷마블이 지난 2016년부터 초등학교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해온 가족 소통 및 관계 증진 프로그램 ‘게임소통교육’의 일환이다. 학부모 및 교사가 게임문화의 가치와 진로, 건강한 소통 방법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한 오픈형 강이다.

오는 5월 24일 ‘게임과 사회’, 6월 21일 ‘게임과 직업’, 7월 19일 ‘게임과 문화’의 주제로 총 3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는 게임 및 심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학부모가 함께 이끌어 나가는 토크 형식으로 서울시 중구 ‘스페이스 아트1’에서 열린다. /김나인 기자 silkni@

## 한국전력 어린이 전기사랑 그리기 대회 열어

한국전력은 어린이와의 감성적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어린이 전기사랑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초등학교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전기, 한국전력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에 대해 한전의 영입 서비스 캐릭터인 해피, 케피, 우피를 활용해 그림을 그리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응모는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본인이 그린 그림을 갖고 한전 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수상자는 6월말에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서 공지 또는 개별 통보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오늘의 운세

5월 11일 (음 3월 26일) <http://www.saju4000.com>

<b>쥐</b> 48년생 가정에 기쁜 일이 생긴다. 60년생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손재수가 있게 된다. 72년생 작은 이익에 연연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84년생 자묘형 살이 있어 부적절한 이상으로 인해 망신을 당하게 된다.	<b>말</b> 54년생 손익계산을 따지지 말고 인간관계를 구축하라. 66년생 협조자의 배신으로 인한 근심이 있다. 78년생 일에 전력을 다 하면 성공이 보인다. 90년생 적당한 긴장감은 심신에 활력이 될 수 있다.
<b>소</b> 49년생 밀의 사람 잘못으로 책임질 일이 생긴다. 61년생 고생 끝에 낙이 찾아온다. 73년생 크게 생각하고 작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85년생 새로운 변화나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야 한다.	<b>양</b> 55년생 동업자와 하찮은 일로 마음 고생이 크다. 67년생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를 먼저 배려하라. 79년생 나보다 못한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 주어야 한다. 91년생 어려운일도 자주 접하면 적응이 된다.
<b>호랑이</b> 50년생 과거의 좋은 인연으로 새로운 일이 생긴다. 62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남의 일에는 일절 간섭하지 마라. 74년생 직접 연루된 일에만 관심을 갖도록 하라. 86년생 구대의연한 방에서 탈피 하도록 하라.	<b>원숭이</b> 56년생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운세다. 68년생 스트레스 해소는 전방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80년생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것이 좋다. 92년생 감각이 예민해지는 시기나 내치 마라.
<b>토끼</b> 51년생 호사다마의 운이라 않은 횡재수가 화근이 된다. 63년생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 함께 도모하라. 75년생 가까운 이성친구와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87년생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만 부가치는 적다.	<b>닭</b> 57년생 내 단점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으니 불편하다. 69년생 병은 자랑을 해야 고칠 수 있다. 81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말로 상처를 받는다. 93년생 혼자 독주한 결과 주변에서 시기하는 말을 듣게 된다.
<b>뱀</b> 52년생 치고 빠지는 방법으로 상황을 반전 시켜라. 64년생 어려울때는 관망하는 자세로 임하라. 76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칭찬 받을 일이 생긴다. 88년생 친척과 돈거래를 하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긴다.	<b>개</b> 58년생 합의 운이라 멀리 지내던 사람과 의기 투합할 일이 있다. 70년생 언쟁으로 속상한 일이 있다. 82년생 지출은 줄이고 낭비를 막아라. 94년생 새로운 만남과 이별의 아쉬움이 있는 운세다.
<b>뱀</b> 53년생 비가 내리고 나면 땅이 더욱 굳어진다. 65년생 주변사람과 두터운 외벽을 사이에 두고 있으면 심신이 피로하다. 77년생 고만하던 일이 해결된다. 89년생 감정대립은 상호 간에 양극만 낫는다.	<b>돼지</b> 59년생 건강 체크를 하고 주위의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71년생 재운이 들어와 투자할 일이 있다. 83년생 동아리회에 리더로 활동하면 사업에 도움이 된다. 95년생 재물에 애착을 버리면 마음이 가볍다.

## 김상회의四季

### 부처님 오신 날

음력으로는 4월 초파일이지만 양력으로는 5월 22일이 된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의 정기법회가 있는 매월 첫째 일요일 5월 6일에 올해의 봉축법요식을 함께 거행했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한 두 군데 이상의 절과 인연을 맺고 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에 아침부터 이 절 저 절 인연 맺은 절집에 참배를 위해 뛰어다니는 신도들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다. 어차피 부처님 오신 날이 어디 있던가? 따라서 신도 분들의 분주한 하루에 배려를 하여드리고 싶은 것이다. 어느 절집처럼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에서 2018년 초부터 이미 ‘연등 만들기’에 전력을 쏟았다. 기실 대부분의 크고 작은 사찰들에서는 음력 3월 초하루 기도를 마치고 나면 바로 연등접수를 시작하면서 바로 여러 종류의 연등을 제작하곤 한다. 준비된 연등 틀에 초록색 일부부터 밑등을 두 줄쯤 붙인 후 분홍색 또는 주황색 등 꽃잎을 붙여 올라가다보면 나름 소담스런 연꽃등이 완성된다.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연등이 소개되고 있는 지라 장관도 그런 장관이 없다. 각각각색의 모양과 색상으로 장엄된 연등은 물론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고 아담한 등들까지 아름답기 그지없다.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등을 만들려고 올력보시를 하는 신도들 덕택에 벌써 꽤 많은 연등이 달려져 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환희 심으로 벅차오른다. 필자는 근 십년 전부터는 연등을 달고자 하는 신도들이 되도록이면 직접 자신의 등을 만들어 달도록 했다. 한 잎 한 잎 마음속으로 간절한 발원을 담아 연등을 만들어 단다면 그 정성이 어디로 가겠는가? 연등(燃燈)이란 말 그대로 ‘불을 밝힌다.’ 무명(無明)을 밝힌다는 뜻이다. 우리 마음과 행동 속의 어리석음과 탐욕 성냄을 밝혀서 본래의 밝은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 함이다. 진흙물 속에서도 맑고 청정함을 잃지 않는 연꽃의 향기와 거기에 더하여 아담 가운데서도 빛나는 연등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피안의 행복으로 이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등을 밝힐 때 우리 마음 속의 무명을 밝히는 신묘한 힘이 있다. 복덕 또한 쌓을 수 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대등을 달기도 하고 사정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형편에 맞추어 연등을 달지만 그 정성과 복덕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빈녀일등(貧女一燈)의 유래가 있듯이 말이다. 부처님 오신 좋은 날에 마음속에 항상 꺼지지 않는 진리와 복덕의 연등을 밝혀보시길 바라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8				
		9						2
	1		7			5	6	
2				1				9
8	4	5	9	7				3
9				5				8
3				8		7	5	6
	2		3		6			1

		1	2	8			4	7	9
3					9				8
4									6
		8			9	6			7
5									2
9				2	3	7			5
		2	7	5		1	3	4	

### 스도쿠 정답

6	1	8	9	7	5	2	3	4
7	5	2	4	6	8	9	1	3
9	5	2	1	8	7	3	6	4
2	8	7	3	9	1	5	6	4
1	9	3	2	6	5	7	8	4
5	6	7	8	1	9	4	2	3
8	9	5	6	2	3	7	1	4
4	2	1	5	9	7	6	8	3
7	8	6	4	3	1	5	9	2
3	4	9	6	8	7	5	2	1
6	7	1	9	5	2	3	8	4
5	1	8	2	4	7	9	6	3
2	9	7	8	1	6	9	5	3
1	2	5	9	7	6	4	8	3
9	8	6	5	2	1	3	7	4
8	9	1	2	6	4	7	5	3
4	6	2	7	5	8	3	1	9
7	5	3	4	1	9	8	6	2

문제 제공= **보너스**

# 주름성형과 안티에이징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요즘 동안열풍에 힘입어 젊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뀌려는 '안티에이징(anti-aging)' 시술이 인기다. 현재 성형외과에서 시행 중인 안티에이징 시술로는 일명 '뽀뽀성형'이라 불리는 주사성형시술과 리프팅수술, 주름제거술 등이 있다.

시술방법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비교적 피부탄력이 좋은 20~30대 젊은층은 필러나 보톡스, 자가지방이식술과 같은 주사성형시술을 가장 선호한다.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40~50대는 처진 눈꺼풀을 제거해주는 상·하안검성형술을 비롯해 눈밑지방제배치, 이마거상술, 안면거상술 등을 선호하는 편이다.

반면 60~7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에는 얼굴은 물론 목 피부가 심하게 처지기 때문에 안면거상술이나 목거상술과 같

은 리프팅시술의 수요가 가장 높다.

그중에서도 일명 '킷성형', '10분성형', '엔에인주사'라 불리는 주사성형시술은 얼굴의 주름을 없애거나 볼륨을 주는 시술로 시술방법이 간단하고 시술 즉시 일상생활이 가능해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을 활용해 시술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성형수술과 같이 피부를 절개하거나 뼈를 깎지 않기 때문에 시술에 대한 부담감이나 부작용 우려도 덜하다. 다만 주사성형시술은 자연스러운 성형효과를 낼 수 있을 뿐 성형수술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속기간이 보통 6개월~1년밖에 되지 않아 재시술을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편 윗 눈꺼풀 또는 아래 눈꺼풀이 처졌다면 상안검성형술이나 하안검성형술로 교정이 가능하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노화가 진행되는 곳이 바로 눈가 피부인데, 눈가는 피지선이 발달하지 않고 피부도 얇아 관리에 소홀하면 눈꺼풀 처짐 또는 눈가주름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것은 물론 상대방에게 지치고 피곤한 인상을 풍기거나 안과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해주는 것이 좋다.

수술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은 눈꺼풀을 너무 과도하게 제거할 경우 '토안(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현상)'이나 '안검외반증(피부 안쪽 붉은 속살이 밖으로 뒤집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모자라게, 그리고 해당시술에 대한 전문성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를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리프팅수술의 대표 격이라 불리는 안면거상술은 주름과 탄력을 동시에 해결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술 후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안면거상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절개부위와 박리범위, 리프팅 방향인데, 의사의 실력에 따라 수술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저렴한 가격이나 병원의 유명세만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해선 안 된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법 의료중재 조정위원)



김영춘 해수부장관, 인니 해양조정부 장관과 회담

해양수산부는 김영춘 해수부장관이 지난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에서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조정부 장관(부총리급)과 회담을 열고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양국 장관은 한-인니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이행협정'에 서명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해수부



거래소, 홍콩·싱가포르서 韓 상장기업 소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부는 JP모건과 공동으로 10일 홍콩, 11일 싱가포르에서 잇따라 '한국 자본시장 설명회 및 상장기업 기업설명회(IR 콘퍼런스(코리아 데이))'를 연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한국 자본시장과 주요 상장기업에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삼성전자와 애경산업 등 상장기업 15개사, 블랙락과 웰링턴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 60여 개사가 참가한다. /한국거래소

# “이거 너 아니야?” 찍히지 않을 권리



김원선 변호사 (유튜버&라이프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이 버젓이 타인의 SNS 계정에 올라와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최근들어 이러한 불만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찍을 권리는 늘어났고, 찍히지 않을 권리는 사라져버렸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과 '마카롱 10개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본인 동의없이 개인의 모습이 담긴 촬영물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두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몰래카메라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선고 유예에 그치는 실정이다. 한번 유포되면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게 몰래카메라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마카롱 10개 사건'의 법정 싸움도 초미의 관심사다. 사건은 이렇다. 평소 자주 찾던 디저트 가게에서 마카롱 10개를 먹은 A 씨는 황당할 일을 겪었다. 가게 주인이 SNS를 통해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재한 것이다. A 씨는 가게 주인에게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가게 주인은 A 씨가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계정 차단은 물론, 마카롱을 먹는 A 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인터넷상에 공개한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악플 공격을 당한 A 씨

는 충격으로 가게 주인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가게 주인 역시 영업 방해로 맞고소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은 쉽게 찾을 수 있다.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린 어린이집, 회원들 몰래 운동하며 땀 흘리는 모습을 게재하는 스포츠센터 등 주변에서도 영상물로 인한 갈등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물론 식별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다.

곧 여름이다. '몰카'가 기승을 부리기 전에 처벌 수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할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찍히지 않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tree6834@metroseoul.co.kr



SKT, 장애청소년 대상 ICT 메이커톤 대회

SK텔레콤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공동으로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2018 SK텔레콤 장애청소년 ICT 메이커톤 대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20주년을 맞는 이 대회는 SK텔레콤이 장애청소년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2016년부터는 코딩·무선통신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첨단 ICT 기술에 중점을 두고 'ICT 메이커톤 대회'로 명칭을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

# 코오롱그룹 마곡 원앤온리타워에 '에코 룬롱 큐브' 개관



친환경 에너지 전시체험공간 '에코 룬롱 큐브'.

코오롱그룹의 비영리 재단법인 '꽃과 어린왕자'는 10일 서울시 강서구 마곡산업단지 내 코오롱 원앤온리(One&Only) 타워에 친환경 에너지 전시체험공간 '에코 룬롱 큐브'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에코 룬롱 큐브는 초등 고학년, 중학생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체험관'과 직접 만들어 보

는 '창작랩'으로 구성된다.

특히 친환경 건물인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의 특징점을 활용해 건물 내 친환경 기술을 찾아보고 친환경 에너지 집을 설계해보는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 투어'와 연구원들과 실험실을 견학하고 강의도 듣는 '나도 미래 기술원 연구원' 등 특별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정은미 기자



신보·과학기술특성화대, 우수창업기업 지원 협약

신용보증기금은 10일 신용보증기금 본점에서 대학 내 우수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내 우수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와 고급인력의 혁신창업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

## 인사

- ◆현대모비스 △IVI-SW(In Vehicle Infotainment-Software) 개발담당 상무 칼스텐 바이스
- ◆아시아투데이 ◇승진 ▲비서실 부장대우 겸 편집국 부장대우 안정환 ▲편집국 사진부 사신팀장 부장대우 박성일 ◇전보 ▲사업국 부국장대우 이재원

## 부음

▲한용빈(동천교회 원로장로)씨 별세, 한승우(한약사)·한동우(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한현우(조선일보 문화2부장)씨 부친상, 이선희·박

영주·남지연씨 시부상=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30분, 02-2258-5940

▲이재성씨 별세=이종행(뉴스1광주전남본부 차장)씨 부친상, 10일 오전, 구로전정래식장 402호, 발인 11일 오후 1시, 장지 전남 담양군 선산 062-960-4444

▲이두호 씨 별세, 이정동(창원상공회의소 기획홍보팀 주임)씨 부친상 = 10일 오전 4시 55분, 경남 창원파티마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 30분, 055-270-1900

▲구도서씨 별세, 구홍희(삼성서울병원 커뮤니케이션실장)씨 부친상=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30분, 02-3410-6915

▲김순복씨 별세, 홍우표(CJB 청주방송 기자)씨

장모상=9일 오전 9시40분, 청주병원 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9시, 043-254-124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창규
편집국장	이창규
인세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395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048호



KB손보, 홀트아동복지회와 미혼모 가정 지원

KB손해보험은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미혼모 가정 영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기부 협약식 및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지원된 365베이비 케어 키트는 기저귀, 분유 등 미혼모들이 출산 이후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필수품을 한데 모았다. (첫 번째줄 오른쪽 세 번째부터) KB손보 양종희 대표이사, 배우 김성은 홍보대사, 홀트아동복지회 김대열 회장. /KB손보

# ‘뻬산업’ 등에 업은 수의예과... 10명 중 8명 수능반영

## 여러 갈래 대학가는 길

### ⑩ 제주대 수의예과



전국10개 대학 498명 선발  
수시 61.7% 수능최저 반영  
학생부 평균 ‘1.1~2.4 등급’

수의예과는 뻬산업 인기에 따라 관심이 커지는 학과로 꼽힌다. 하지만 수의예과 선발인원은 전국 10개 대학 498명에 불과하다. 각 대학 2019학년도 전형계획안을 기준으로 이들 대학들은 정원의 60.8% (303명)를 수시에서 뽑고, 정시모집 선발인원은 39.2% (195명)이다. 서울대의 경우 정원 40명 전원을 수시에서 뽑고 나머지 대학은 수시, 정시로 나눠 선발한다. 수의예과 신입생 10명 중 6명을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치르는 수시모집에서 뽑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은 간과할 수 없다. 수시모집 인원의 61.7%인 187명을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수능 위주전형인 정시 선발인

#2018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을 통해 제주대 수의예과에 합격한 A 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1년 간 재수 후 재입학한 케이스다. 이미 받아 놓은 학생부 등급은 1.5등급대로 높아,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이 가능했고 합격할 수 있었다. 다만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합격이 어려웠다. 대다수 수의예과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제주대 전경

/제주대학교

원까지 합하면 총 76.7%를 수능 성적을 반영해 선발하므로, 수의예과를 지원하려는 수험생은 수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별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보면, 서울대는 수능 3개 영역에서 각 2등급 이내를 요구해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까다롭다. 제주대·경북대·충남대는 수능 3개 영역 등급합 6 이내이고, 강원대·충북대는 수능 3개 영역 등급합 7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수의대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최소한 수능 국어, 수학가형, 영어, 과탐 중 3과목 이상은 2등급 이내를 받는 것이 좋다.

수의예과 수시모집 전형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 선발인원(49.8%)이 가장 많고, 학생부종합전형(41.6%) 선발인원 또한

10명 중 4명으로 적지 않다. 논술전형은 건국대와 경북대 2개교에서만 치르고 선발인원도 8.6% 정도다. 제주대의 경우는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높다. 수시모집 선발인원 20명 중 18명은 학생부교과로, 2명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면접 없이 학생부 성적만으로 선발하므로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은 면접 준비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자들의 학생부 등급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입포털 ‘어디가’(adiga.kr)를 보면, 2017학년도 수의예과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자들의 학생부 성적 평균은 1.1등급~2.4등급 내외다. 경상대·경북대는 합격자 학생부 평균 등급

이 1.1로 매우 높다. 이어 전북대는 1.5등급, 강원대 1.7등급, 충남대 1.9등급, 제주대 2.4등급 정도다. 결국 수의예과 합격이 가능한 학생부 등급 수준보다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올해 발표되는 전년도(2018학년도) 입시 결과 발표가 나오면 이를 체크해 성적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제주대 수의예과에 합격한 A 씨의 수능 성적은 영어, 국어, 수학나, 탐구 2과목 모두 2등급을 받아 국수탐 3과목 합계 등급이 6이었다.

A 씨는 수능 국수탐 영역별로 별도의 합성전략을 세웠다. 국어는 문제풀이 순서를 정해놓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다. 화법작문(15문제), 문학(15문제), 독서

(15문제)에 각 최대 20분, 30분, 30분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풀이연습을 했다. 특히 지문을 읽기 전 문제를 먼저 볼 문제를 판단해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썼다. 내용 확인 문제는 지문 전반에 걸쳐서 근거가 분산되어 있어 문단마다 읽으면서 풀어야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수능 수학은 문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자주 틀리는 패턴과 유형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평소 자주 틀리는 형태의 문제 때문에 시간을 허비해 풀 수 있는 다른 문제 풀이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 씨는 적은 양의 문제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부해 감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주 틀리는 패턴을 익혔다.

수능 탐구영역은 개념에 대한 반복 학습과 기출문제 중심으로 어려운 문제 풀이 훈련에 집중했다. 단원별로 속도를 높여 인강을 훑는 방법과 모의고사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책을 보지 않고 백지에 암기 개념을 적어 빈틈을 찾는 공부 방식도 효과적이라고 했다.

A 씨는 “모의고사를 채점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부족한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간이 부족했다면 어디에서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는지, 실수를 했다면 문제 이해과정에서 한 것인지 또는 풀이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다시 상이해 분석해 보는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종로학원하늘교육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대학가 소식

### 중앙대 개교100주년 두산 응원전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11일 오후 6시 30분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베어스의 홈경기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 중앙대-두산 응원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응원전에는 김창수 총장과 2500여명의

중앙대 재학생 및 교직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중앙대 안성캠퍼스 신정은 부총학장회장이 시구를 하고, 서울캠퍼스 조승현 총학생회장이 시타를 한다.

중앙대 관계자는 “두산베어스 응원전은 구성원들이 학업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 만족도가 높다”며 “올해는 중앙대 개교 100주년을 맞은 만큼 중앙가족 모두가 하나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 경희사이버대 대학원 2018 후기 입학생 모집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원장 방성원)은 오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2018학년도 후기 입학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전공은 호텔관광대학원의 ▲호텔외식MBA ▲관광레저항공MBA, 문화창조대학원의 ▲미디어콘텐츠제작전공 ▲문

화예술경영전공 ▲미래시민주도대학원 ▲미래시민주도대학원 5개 전공이다. 원서는 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khcu.ac.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전형은 서류평가 40%(자기소개서 20%+연구계획서 20%)와 심층면접 60%이다.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 서울대대학행정교육원 교직원용 영어 참고서 발간

서울대학교대학행정교육원(원장 성삼제)은 10일 교직원용 영어 참고서 ‘교직원을 위한 대학행정영어’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책은 대학 행정 실무자가 집필한 만큼 대학 내 실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맞춤형 교재로, 교무, 서무, 기획, 시설 등 다양한 행정에 사용되는 영어가 정리돼 있고, 서울대가 지정해서 사용하는 기구명, 직책명 등도 찾기 쉽게 부록으로 첨부했다. 책에는 대학 직원들이 업무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면서도 영어 표현을 모르거나 번역하기 까다로운 부분들에 대



한 상세 설명과 정비가 담겼다.

저자인 조문주 씨는 2005년 서울대 홍보팀에 입사해 12년 간 재직하면서 대학의 영문 홍보물 제작을 담당해오고 있다. 저자는 책 서문에서 “한 사람의 번역이라기보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침착이 누적된 결과물이라 더 의미가 있다”면서 “교직원들이 유용하게 쓰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19개대 기숙사 신설... 9462명 보금자리 마련

## 한국외대·인천대·삼육대 등 월세 ‘20만원’ 시세보다 저렴

올해 한국외대, 인천대, 삼육대 등 전국 19개 대학 캠퍼스에 기숙사가 개관해 대학생 9462명이 신규로 입주한다. 평균 월세는 20만원 내외로 대학가 인근 원룸 등 주거비용보다 저렴하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대학생 주거안정과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질 좋고 저렴한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 확충을 통해 2022년까지 대학생 5만명을 추가 수용하도록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대학 기숙사 신설에 정부 예산 2753억 원이 투입된다.

기숙사 형태는 국립대 민간임대형기숙사(BTL) 7곳(5631명)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저금리로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건립되는 사립대 행정(공공)기숙사 4곳(1469명), 사립대 자체재원으로 건립하는 기숙사 8곳(2362명)이다. 올해 3월 개관한 기숙사 평균 월세는 국립대는 19만4000원, 행복(공공)기숙사는 21만8000원, 사립대는 21만4000원이다.

국립대 민간임대형기숙사는 올해 1학기 서울과기대, 순천대, 인천대, 제주대에 개관했고, 2학기에는 목표해양대 부산대 본교와 양산캠퍼스, 재정캠퍼스 기숙사가 문을 연다.

인천대는 송도캠퍼스기숙사 개관으로 기숙사 수용률이 18.6%(기존 9.9%)로 높아져 학생 주거여건이 크게 향상됐고, 2학기 문을 여는 목표해양대 기숙사는 목표시청과 협업을 통해 기숙사 상·하수도 요금을 기존보다 45%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3월 개관한 서울과기대 수림학사(위), 인천대 BTL 기숙사 조감도(아래) /교육부

균 월세는 21만4000원이다. 4인실인 유원대는 12만700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3인실인 한남대 기숙사는 13만8000원이다. 2학기에는 삼육대, 수원여대, 부산경상대, 신한대 4개 대학 기숙사가 문을 열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재 추진중인 국립대기숙사 10곳, 행복기숙사 11곳(공공기숙사 8곳, 연합기숙사 3곳)과 함께 국·공유지에 건립해 인근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연합기숙사 등 신규 사업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체계 구축과 공공요금 절감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중이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기숙사 개관식과 학생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현장의견을 반영해 대학생 주거안정과 주거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21.2%로, 학교 유형별로 국·공립대가 24.8%로 사립대(20.2%)보다 높고,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기숙사 수용률(24.9%)이 수도권(16.0%)보다 높다.

경북대, 강원대, 한남대 등 국립대 10곳이 2019년부터 개관을 목표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민간임대형 기숙사 건립이 추진 중이고, 한성대와 인천재능대 등 8개 대학에는 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행복(공공)기숙사는 2019년 1학기부터 문을 연다. 인근 대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연합기숙사는 2020년 3월 서울 동소문동과, 응봉동, 충남 천안시에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636호(2018.2.13)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상담 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 지상파·중편·케이블 5월의 드라마 전쟁... 장르 vs 로맨스

5월 '드라마 대전'이 시작됐다. 로맨스부터 장르물까지, 평일과 주말을 꽂 채울 신작들이 출격을 준비 중인 만큼 리모콘을 바쁘게 움직일 때다.

지상파는 각각의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운다. 낮은 시청률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MBC는 '절치부심'을 키워드로 목격된 신작 두 편을 내놓는다. SBS는 서숙향 작가와 송윤아를 앞세워 '드라마 명가'의 명성을 이어간다. 유일하게 신작이 없는 KBS는 한 발 빠르게 시청자들을 확보한 만큼 시청률 수성에 집중한다.

중편과 케이블도 발 빠르게 시청률 사수에 나섰다. JTBC와 tvN이 로맨스와 장르물로 기대를 높인다면, MBN은 리메이크 작품으로 대전에 뛰어 들 준비를 마쳤다.

◆법정·의학·스릴러까지... 장르물 '우수수' 법의학, 변호사, 형사 등, 5월에는 목격된 장르극들이 시청자들을 찾는다.

먼저 MBC는 새 월화극으로 '검법남녀' (극본 민지은/연출 노도철)를 내놨다. 이 작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배경으로 한 탈(脫) 멜로 드라마로, 완벽주의 괴짜 법의학자와 열정, 허당미 가득한 초임 검사의 공조 수사를 다룬다. 9일 첫 방송된 이 작품은 배우 정재영, 정유미의 시너지로 호평 속에 첫 방을 내디뎠다.

SBS는 토요일 신작으로 '시크릿 마더' (극본 황예진/연출 박용순)를 전격 편성했다. '워맨스 스펀지'를 표방한 이 작품은 아들 교육에 올인한 강남 열혈맘의 집에 의문의 입시 대리모가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오는 12일 첫 방송을 앞둔 '시크릿 마더'는 배우 송윤아, 김소연의 컴백작으로 일찌감치 화제를 모은 데다, 독특한 소재로 주목 받고 있다.

JTBC는 새 월화극 '미스 함무라비' (극본 문유석/연출 광정환)와 새 금토극 '스케치' (극본 강현성/연출 임태우)로 시청률 호조를 이어간다.

먼저 오는 21일 첫 방송을 앞둔 '미스 함무라비'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법원을 꿈꾸는 이상주의 열혈 초임 판사와 선부른 선의보다 원리원칙이 최우선인 초엘리트 판사, 세상의 무게를 아는 현실주의 부장 판사 등 각기 다른 세 명의 재판부가 펼치는 법정 드라마다. 고아라, 성동일, 류덕환 등 연기 구멍 없는 배우진과 '연기불'로 입지를



## 지상파·중편 등 시청률 확보 나서 각양각색 드라마 신작 10편 우르르

**검법남녀** 법의학자·검사 공조 수사 **시크릿마더** 독특한 소재로 관심 ↑

**훈남정음** 시청률 제조기 대거 출연 **이리와 안아줘** 뜻밖의 신예 앞세워

쌓은 김명수가 호흡을 맞춘다. 오는 25일 첫 방송을 앞둔 새 금토 드라마 '스케치'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여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작품은 정해진 미래를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운명을 담은 수사 액션 드라마. 정지훈의 2년 만의 복귀작이자, 이동건의 결혼 후 첫 작품인데다, 두 사람이 15년 만에 한 작품에서 만나는 만큼 기대가 모인다. tvN은 새 토일드라마 '무법변호사' (극본 윤현호/연출 김진민)로 주말 시청

률 사로잡기에 나선다. 오는 12일 첫 방송되는 '무법변호사'는 법 대신 주먹을 쓰던 무법(無法) 변호사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절대 권력에 맞서 싸우며 진정한 무법(武法) 변호사로 성장해나가는 이야기로, 이준기, 서예지, 이혜영, 최민수가 캐스팅됐다.

◆내 취향 저격할 '로맨스'는? 목격된 장르극이 평일과 주말, 곳곳에 포진해 있다지만 로맨스가 주는 재미도 놓칠 수 없다.

SBS는 '기름진 멜로' (극본 서숙향/연출 박선호)와 '훈남정음' (극본 이재운/연출 김유진) 등 두 개의 로맨스극으로 평일 밤 시청자들을 만난다.

먼저 지난 7일 첫 방송된 새 월화드라마 '기름진 멜로'를 통해 유쾌한 로맨스의 탄생을 알렸다. 특히 2010년 드라마 '파스타'로 스타작가 반열에 오른 서숙향 작가가 이번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중화요리로 배경을 옮겨 새로운 로맨스를 그린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 여기에 장학과 정려원, 준호가 삼각

로맨스를 그릴 예정으로 궁금증을 높인다.

오는 23일 첫 방송을 앞둔 '훈남정음'은 사랑을 거부하는 비연애주의자 훈남과 사랑을 꿈꾸지만 딱딱한 현실에 연애포기자가 된 정음이 연애불능 회원들의 솔로 탈출을 도와주다가 사랑에 빠지는 코믹 로맨스 작품이다. 남궁민과 황정음을 비롯해 심혜진, 오윤아, 이문식 등 '시청률 제조기'들이 대거 출연한다.

여러 차례 로맨스극의 실패를 맛본 MBC는 장기용, 진기주 등 뜻밖의 신예들을 앞세운 새 수목극 '이리와 안아줘' (극본 이아람/연출 최준배)를 선보인다. 오는 16일 첫 방송되는 이 작품은 살인사건 때문에 엇갈린 삶을 살게 된 남녀의 기구한 운명을 그린다.

tvN은 새 월화드라마 '멈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타임' (극본 추혜미/연출 김형식)으로 색다른 로맨스를 내놓는다. 배우 이상윤, 이성경, 임세미 등이 출연을 확정된 이 작품은 수명 시계를 보는

능력을 가진 여자 미키와 악연인지 인연인지 모를 문명에 엮인 남자 도하의 로맨스를 그린다. 동시기 방송되는 작품 중 유일하게 판타지를 가미한 작품인데다, 로맨스와 장르물 연출에 탁월한 능력을 입증해낸 김형식 PD가 연출을 맡은 만큼 기대가 쏠린다.

마지막으로 MBN, 드라마엑스가 야심 차게 선보인 새 수목드라마 '리치맨' (극본 황조윤 박정예/연출 민두식)은 엑소 수호(김준민)와 하연수의 독특한 멜로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겠다는 각오다. 일본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안하무인 천재 사업가 유찬과 알라고 기억력을 가진 최준생 보라의 이야기를 그린다.

그야말로 볼거리가 넘실대는 5월이다. 시청자들의 취향을 저격할 신작 10편, 이 가운데 시청률과 화제성까지 사로잡을 '왕좌'는 누구에게 돌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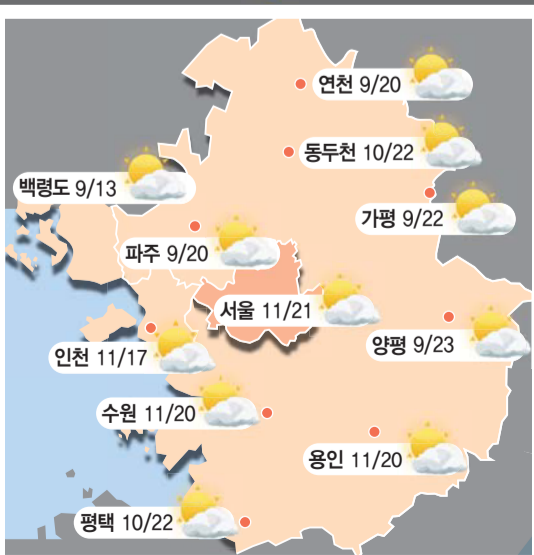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사진/HB엔터테인먼트·JTBC·tvN·SBS·MBC·MBN

## 오늘의 날씨

5월 11일  
음력 : 3월 26일

수도권 날씨  
21 ~ 1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변산' 이준익·박정민, 청춘페스티벌에서 만나자

### 유쾌한 스웱 가득한 청춘 이야기

영화 '변산'의 이준익 감독과 박정민이 오는 12일 난지 한강공원에서 진행되는 "청춘페스티벌: 아무나 대잔치 - 그냥 아무 '나' 되자" 무대에 오른다.

이번 '청춘페스티벌 2018'은 찬란한 청춘 '동주', 불타는 같은 청춘 '박열'에 이은 청춘 3부작 중 세 번째 작품이자 가장 빠센 청춘들의 이야기 '변산'으로 돌아온 이준익 감독과 청춘을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력을 입증받은 배우 박정민의 출연으로 일찌감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준익, 박정민. /메가박스(주)플러스엠

영화 '변산'은 이준익 감독의 지금까지 작품들과는 다르게 유쾌한 스웱으로 가득한 청춘들의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인다. 특히 이준익 감독은 '청춘페스티벌 2018'을 통해 영화 작업을 해 오면서 느꼈던 모든 경험들을 바탕으로 청춘들에게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응원의

말을 건넨다.

이준익 감독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변산'의 주연배우 박정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표 청춘이자 관객들의 공감을 자아내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주목을 받아 온 배우로서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화 '변산'을 통해 발렛 파킹,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빠센 일상 속에서도 꿈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는 무명 래퍼 '학수'로 완벽 연기 변신을 한 박정민은 이번 '청춘페스티벌 2018'을 통해서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한다.

/신현선 기자 tree6834@

난 멈추지 않는다 ⑦ 나무위의 피터팬, 미즈노 마사유키

# “트리하우스는 동경 아닌 ‘꿈’ 아이들에 고향 같은 집 선물”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는 어린이날이 필요 없다. 찾는 사람 누구나 소년이 되는 느티나무 집(트리 하우스) 때문이다. 200여년 마을을 지켜온 당산나무는 미즈노 마사유키(50) 씨의 손길을 타고 마을 명소가 됐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살아있는 액자로 사계절을 내려다본다. 5년 전 미즈노 씨가 나무 위에 창문을 달고 지붕도 얹은 덕분이다. 도시에서 분투하던 중년의 가장이 '대동리 피터팬'이 된 사연을 듣기 위해 어린이날 다음날인 지난 6일 그의 집을 찾았다.



### ◆돈이 곧 행복인 줄 알았다

“다음에 올 때는 달라질 거예요!” 드림캐피를 만들던 미즈노 씨는 집을 나서며 방문객의 기억 언저리에 인삿말을 새겼다. 이 집의 가훈은 ‘우리집은 항상 공사중. 행복도 성공도 공사중’이다. 대문 역할을 하는 트리 하우스와 긴 마당을 사이에 둔 주택. 미즈노 씨에게 이 공간은 살아 움직이는 땅, 네버랜드다.

미즈노 씨의 행복 공사는 그의 인생이 대한해협의 파도처럼 수차례 철썩인 뒤에야 시작됐다. 훗카이도 샷포로가 고향인 그는 1993년 같은 종교를 가진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경기도 광주에서 5년 동안 살았다. 1998년 다시 찾은 고국 땅은 외환위기에 직면한 한국처럼 사정이 안 좋았다.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캐드(CAD) 자격증을 따 중견 건축업체에 들어갔다.

남들처럼 은행 대출로 아파트를 장만하고 매일 야근했다. 아내와의 대화는 끊기고, 아이들의 얼굴도 볼 수 없게 됐다. “그런데 돈은 생기니까, 이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입사 2년 뒤인 2000년 봄. 도망갔던 피터팬의 그림자가 창문을 두드렸다. “창문 너머 길가에 민들레가 피어있었어요. 그때 알았죠. ‘봄이 왔구나.’ 흰 나비가 날아와 왔더군요. 어린 시절 고향에서 쫓아다니던 그 나비가.”

그때 만일 회사 밖을 나가 민들레를 바라보았다면 부장이 화를 냈을지도 모른다. 뒤통수가 저릿했다.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목줄이 있구나. 이렇게 살기 싫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 ◆후쿠 선장 같고리같은 세상

하지만 살아둔 재산은 커녕 그럴싸한 사업 계획도 없었다. 하루하루 무거운 넥타이를 목에 두르던 어느날, 병원에서 결핵 판정을 받았다.

병을 이유로 해고당한 그의 자존심은 후쿠 선장의 같고리 같은 현실에 무참히 찢겨졌다. 신기루 같은 인맥은 명함과 함께 사라졌다. 아이는 둘, 아내는 우울증. 본인도 폐인이 되었다. 장모님은 병으로 돌아가셨다. 미즈노 씨 가족은 경기도 수원에서 분식집을 하던 장모님의 집에 도망치듯 달려왔다. 삶에 대한 의욕이 꺾였다.



트리 하우스는 사방에 뻗은 나뭇가지와 조화를 이룬다. 방바닥에서 뻗어나온 가지가 창문과 지붕을 지탱하고 있다(위). 마당에서 바라본 트리 하우스(왼쪽). /이범중 기자

“더이상 잃을 게 없었을 때 ‘만들기’ 생각  
2004년부터 버려진 물건으로 집 꾸며  
트리하우스 다큐 찍으며 반년만에 완성  
현재는 지역명물·체험학습장으로 등록

재개발을 앞두고 관리되지 않는 아파트 4층에 집을 푼 뒤에는, 온 가족이 목숨을 끊자는 이야기도 오갔다. 온 나라가 월드컵의 열기에 들썩이던 2002년 여름이었다.

“죽음을 가리키는 한국말에 ‘돌아가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 나는 여기서 죽으면 돌아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멋지게 살고 싶고 하고픈 일도 많았는데, 나, 이대로는 못 죽는다.”

아내를 부둥켜안고 눈물 흘린 미즈노 씨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끝내기로 했다.

### ◆동경 아닌 꿈을 꾸면, 기회가 온다

“생각보다 꿈과 동경을 헛갈리기 쉬워요. 그런데 저는 그때 꿈이 ‘만들기’라고 느꼈어요. 옛날의 나였으면 참고 돈 모아서 나중에 하자고 했겠지만, 이젠 더 잃을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마음먹자,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 2003년 일본 애완동물 업체의 한국 주재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다. 2004년에는 장모님이 살던 김제 집으로 갔다. 버려진 물건들로 집을 꾸며다. 사람들의 시



선은 잇은 지 오래였다.

미즈노 씨의 존재를 알게 된 프로덕션은 그를 일본 담당 코디로 불렀다. 2011년 11월. 도쿄 출장길에 오른 미즈노 씨는 잊고 지낸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했다. “카사(CASA)라는 건축 잡지의 트리 하우스 특집이 서점에 있었어요. 샀습니다.” 2009년 이사한 집 앞의 당산나무가 달리 보였다.

동경과 꿈의 갈림길에서 미즈노 씨는 40대 가장이라는 ‘객관적인 나’를 마주했다.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2년 뒤. 함께 일하는 PD가 ‘인간에게 만들이란 무엇일까’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다. 잡지에서 읽은 트리 하우스의 대가, 고바야시 타카시가 떠올랐다.

그때 PD가 입을 열었다. ‘일본에서 나무 위에 짓는 사람이 있는데, 섭외해 주세요.’

꿈만 같던 고바야시 씨와의 만남에서 현재를 즐기는 그의 모습을 마주했다. 이후 방송은 나무집 만들기로 가닥이 잡혔다. 2013년 여름에 시작된 트리 하우스 건설은 반 년 만에 마무리됐다. 어른들은 마을 회관이 생긴 뒤 방치된 당산나무를 돌봐 온 그를 응원해주었다.

이후 ‘미즈노씨네 트리하우스’는 지역 명물이 됐다. 감탄을 내뱉으며 나무에 오르는 누구나 텅커벨이 된다. 피터팬이 된다.

### ◆“나의 꿈은 웃음 가득 네버랜드”

나무집은 어쩌서 동경이 아닌 꿈이라는 확신이 들었을까. 미즈노 씨는 ‘뿌리’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동경은 한 번 가르면 안 자라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럴 때가 있었어’ 하죠. 뿌리가 있어 계속 자라면 꿈인데,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믿어야 해요. 그럼 운이 다가옵니다.”

그의 꿈을 현실로 이끌어준 이들은 웬디와 다섯 아이들이다. 피터팬을 사랑하는 웬디의 마음으로, 그의 아내는 잃어버린 꿈의 그림자를 발에 꿰매 주었다.

지금 미즈노 씨네 집은 체험학습장으로 등록돼 있다. 닭장에는 닭들이, 부화기엔 계란과 메추리알이 있다. 거실은 카페로, 남는 방 한 칸은 사랑방으로 쓴다.

“저는 아파트 세대여서, 고향집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거실 바닥 상처에 사연이 없고, 벽에 그려진 키도 없지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집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작고 오래되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집.”

그의 바람대로, 아이들은 네버랜드가 자랑거리다. 대학생인 첫째와 둘째는 이달 연휴에 각각 친구 10여명을 데려왔다고 해,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젊었을 때 꿈은 ‘세계 평화’였는데, 살다 보니 그 조건은 가정의 평화였어요. 이 집은 저와 같아요. 집을 계속 만지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가족 사랑을 보듬기 위해서지요. 제 꿈은 계속 내 방식대로 이 집을 꾸며가는 삶이랍니다.”

/김제(전북)=이범중 기자 jcker@metroseoul.co.kr

## “매주 토요일, 숲속 작은 음악회 열어요”

### 내일부터 ‘양재시민의숲 봄 음악 소풍’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는 오는 12일부터 양재 시민의숲에서 숲속 작은 음악회 ‘2018 양재시민의숲 봄 음악 소풍’을 개최한다.

음악 소풍은 울창한 숲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젊은 뮤지션들의 연주로 진행된다. 오는 12일에는 ‘연어 초밥’과 ‘신길역로망스’, 19일에는 ‘베니 줄리’와 ‘뮤립’, 다음 달 2일에는 ‘피그말리온’, ‘크림파스타’, 9일에는 ‘프렌드양’과 ‘국밥’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공연장 한 칸에서는 천연방향제 만들기, 손글씨 쓰기 등의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음악 소풍은 사전예약 없이 공원을 이용하는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과과로



양재 시민의숲 봄 음악 소풍 모습. /서울시

문의하면 된다.

이용태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시민의숲은 울창한 숲이 있어 편안한 휴식같은 공원”이라며 “5월과 6월 주말에는 시민의숲에서 가족, 친구, 연인들과 감성 충만한 시간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5년간 공공도서관 30개 확충

### 도서관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서울시립도서관이 5개 권역별로 확충된다. 서울시 최초의 ‘시립장애인도서관’도 세워진다. 향후 5년간 40개의 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통해 카페·사무실·작업실 같은 공간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먼저 시는 권역별 시립도서관과 구립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을 5년간 30개관 확충한다.

시립도서관 중 한 곳은 서울시 최초의 시립장애인도서관으로 조성한다.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모두를 고려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머지 도서관은 인문사회, 그림책, 가족, 창업비즈니스를 테마로 한 전문·특화 도서관으로 건립한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사에서 ‘도서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도서관의 공간 개선도 이뤄진다. 시는 매년 10개관을 선정해 ▲도시의 거실 ▲도시의 사무실 ▲메이커스페이스 ▲미디어센터 4개의 유형으로 도서관 공간을 재조성한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확대·강화한다. 시는 25개 자치구별로 ‘정보취

약계층 지원센터’를 세워 다문화가정,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한다.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125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액해 보유 장서를 늘린다. 도서관별로 제작각인전자책 뷰어를 통일하는 전자책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해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기록물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인 ‘서울 아카이브’를 만들어 운영한다.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인문·독서 동아리를 3000개로 늘리고 공유플랫폼 구축, 활동공유 축제 등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도서관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해 도서관 정책 수립에서부터 시행까지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ik1@



[산업] 태광그룹 지배구조 개선 경영승계 마무리 단계 04



Life

[산업] SK브로드밴드 국내 최초 2.5기가 인터넷 상용화 05



# 약사가 만든 코카콜라, 음료 넘어 문화 아이콘으로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Ⅳ '코카콜라'

시골 약국의 음료수였던 코카콜라는 1886년 처음 탄생한 뒤 현재의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로 거듭났다. 1915년 등장한 코카콜라 병은 특유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단순한 음료수 병을 넘어 예술, 음악, 광고에 영감을 주며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됐다. 코카콜라는 콜라를 넘어 탄산음료의 대명사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음료수가 만들어지고 약 13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결같이 사랑을 받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다. 전세계 20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하루 소비량은 19억 잔으로 1초당 약 2만1990잔이 판매된다. 2016년 기준으로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는 약 82조원이다.

### ◆코카콜라의 탄생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약사로 일했던 존 펌버턴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러 가지 약재들을 배합해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게 취미였다. 코카콜라가 탄생한 그날도 연구실에서 다양한 배합을 시도하는 중이었다. 코카콜라가 만들어지던 당시의 미국은 남북 전쟁이 끝나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 그리고 전후 재건사업의 피로에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속 생겨났다. 그 탓에 미리 조제해 두었다가 판매하는 약들이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펌버턴 박사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맞게 늘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기왕이면 약효도 있고 맛도 좋은 음료를 만들고 싶었다. 수차례에 걸친 실험과 연구 끝에 드디어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맛을 지닌 독특한 음료가 탄생했다. 바로 코카콜라였다.

1886년 5월 8일 펌버턴은 자신이 배합해 만든 코카콜라 원액을 연구실 근처에 위치한 제이콥스 약국으로 보냈다. 당시에는 동네 약국마다 탄산수 제조기로 알려진 '소다파운틴'이 있었다. 소다파운틴 앞은 가볍게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즐기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늘 사람들로 붐볐고, 18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 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바로 이곳에서 코카콜라 원액과 탄산수를 유리잔에 함께 넣고 수저로 휘휘 저어 코카콜라가 만들어졌고, 사람들에게 판매됐다.

### ◆금주법 시대의 금주용 음료

코카콜라가 탄생했던 1886년은 미국 전역이 금주법으로 떠들썩했던 시기였다. 펌버턴 박사가 코카콜라를 두고 '나의 금주용 음료'라고 부른 것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였다. 좀 더 큰 성공을 원했던 그는 애틀랜타 저널에 'Delicious! Refreshing! Exhilarating! Invigorating!(맛있고,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음료)'라는 광고도 실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펌버턴 박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자신이 발명한 이 음료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음료라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건강 약화로 곧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1888년 숨을 거두기 전까지 펌버턴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업 지분을 넘겼다. 애틀랜타의 사업가였던 아사 캔들러도 그 중 한 명이었다.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과 통찰력을 지닌 캔들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들을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했고, 1888년 코

### 코카콜라 컨투어 병 변천사



자료/코카콜라



코카콜라를 판매했던 제이콥스 약국.



존 펌버턴 박사.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에서 진행한 샘플링 모습.

### 1886년 시골 약국 음료였던 코카콜라 현재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로 거듭나

### 빨간색 로고·독창적인 병 디자인으로 130년간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어가 약 90년간 올림픽 파트너로 활약도

카콜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됐다.

### ◆독창적인 코카콜라 병

코카콜라 병은 특유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어왔다. 앤디 워홀이 그의 그림에 코카콜라 병을 그려 넣었고, 폭스바겐은 자동차 비틀의 디자인을 매력적으로 여필하기 위해 코카콜라 병을 광고에 활용하기도 했다. 전 세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알아보는 코카콜라 병은 경쟁업체의 모방으로부터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다. 코카콜라의 높은 인기와 성장에 경쟁업체들이 코카콜라 유사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코카놀라, 마코카코, 토카콜라 등이 등장했다. 이때 코카콜라와 보틀링 파트너들은 누구도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차별화된 병'을 개발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공모전을 통해 코코아 열매의 길게 늘어진 불룩한 곡선 모양과 겉면에 그려진 흐르는 듯한 세로 선으로 디자인된 지금의 코카콜라 병이 탄생했다. 1915년 최초의 특허를 받은 살짝 통통한 모양에서 오늘날의 좀 더 슬림한 디자인으로 여러 차례 리뉴얼을 거쳐왔다. 1955년 산업 디자이너인 레이먼드 로위가 리뉴얼한 병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이 디자인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 ◆코카콜라 레드 의 시작

코카콜라하면 머릿속에 선명한 이미지로 떠오르는 건 독특한 모양의 병과 함께 특유의 '빨간색'이다. 다양한 음료들이 진열된 대형 마트에서 코카콜라가 한 눈에 들어오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강렬함을 품은 컬러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렇듯 빨간색이 코카콜라를 상징하는 컬러가 됐다. 코카콜라 상표 이름과 붉은색의 독특한 필기체로 적힌 'Coca-Cola' 로고를 처음으로 생각해 낸 사람은 존 펌버턴 박사의

파트너였던 프랭크 로빈슨이다. 평상시에도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흰색과 빨간색의 조합을 좋아하던 그는 흰 배경 위에 빨간색 글자로 '맛있고 상쾌한 코카콜라'라고 쓴 슬로건을 만들었다. 바로 이 슬로건이 빨간색을 코카콜라의 상징으로 만든 시작이었다.

1948년 코카콜라를 판매하는 곳을 표시하기 위해 만든 빨간색 원반 모양의 간판은 코카콜라와 빨간색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으며, 빨간색은 코카콜라를 대변하는 상징이 됐다.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코카콜라 제로, 코카콜라 라이트 등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빨간색' 상표는 130년이라는 시간의 장벽을 넘어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코카콜라 전 제품의 패키지를 레드 컬러로 통일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통합했다.

### ◆가장 오래된 올림픽 파트너

코카콜라와 올림픽의 인연은 약 90년 동안 이어져 왔다. 가장 오래된 올림픽 파트너인 코카콜라는 그동안 200개 이상의 국가 올림픽위원회들과 함께 선수들의 훈련을 지원하고, 스포츠 팬들에게 독특하면서도 즐거운 경험을 경험을 제공해왔다. 한 세기 가까이 쌓아온 코카콜라만의 올림픽 경험과 노하우는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조언을 구할 정도로 탄탄하다.

코카콜라와 올림픽의 첫 인연은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 대회에 출전한 미국 선수들을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코카콜라 1000박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됐다. 미국 선수들이 대회 기간 동안 코카콜라를 마시는 지켜본 다른 나라 선수들과 관중들은 코카콜라에 대해 궁금해했고, 대회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하자 코카콜라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코카콜라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첫걸음을 댄 셈이었다.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것이 송화봉송이다. 이 송화봉송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게 된 것도 코카콜라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1992년 바

르셀로나 대회부터 올림픽 송화봉송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한 코카콜라는 국제 올림픽 송화봉송 주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송화봉송 릴레이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송화봉송은 전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이자 하나의 문화로 발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사진=코카콜라

